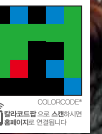
도로명주소의 모든것 www.juso.go.kr
찾아갈 때도
도로명주소!
배달 주문할 때도
도로명주소!
보내고 받을 때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홍보대사
박 지 민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로 바꿔보세요.
더 빠르고 편리한 생활-
도로명주소가 만들어갑니다.
주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 www.juso.go.kr
지번주소, 건물명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내가 찾는 도로명주소가 한 눈에!
스마트폰에서 찾아보세요 '주소찾아' 앱(App)
건물번호판을 비추거나, 건물명을 검색하면
내가 찾는 도로명주소가 한 손에!
'주소찾아' 앱(App)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티스토어, 올레마켓, U플러스앱마켓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찾아보세요
검색창에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내가 찾는 도로명주소가 한 번에!
세종대로
Sejong-daero
209
행정안전부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됩니다.
Weekly 공감
2013.01.14 NO.192
korea.kr/gonggam
새해 특별 인터뷰 이어령 前 문화부 장관 P16~19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막바지 준비 P48~53
기획특집
복지 앞세우고 국민안전 뒷받침
나라살림 342조 이렇게 쓴다 P29~46

2013 예산에 거는 기대

염명배
한국재정학회장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새해 예산은 재정 트릴레마를 풀기 위한 첫 단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 노력이 다소 미흡해 보여 아쉽다. 올해 경제성장이 부진해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힐 가능성이 있다. 기대보다 재정적자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예산 342조원이 확정되었다. 올해 예산은 예년에 비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한 해의 예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기조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이자 국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미국 경제학자 슘페터가 한 말이다. 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는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라고 했다. 국정운영에서 재정과 예산의 핵심 역할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새 정부는 서로 다른 방향의 재정 트릴레마에 직면해 있다. '3차원 재정 퍼즐'을 풀어 나가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뜻이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저성장시대에 대비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력을 튼튼히 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 강화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장이나 효율성보다 분배와 공평성 측면에 정책의 무게를 두어야 한다. 반면 저성장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배보다 생산성 촉진 위주의 잠재성장력 강화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 지출 과정에서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국가파탄을 겪지 않으려면 재정준칙을 수립하고 적정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2013년 예산은 새 정부가 당면한 재정 트릴레마를 풀기 위한 첫 단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새해 예산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맞춤형 복지,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제고 등에 역점을 두고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3퍼센트 수준으로 균형재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당초 국회에서 요구했던 7,000억~9,000억원의 추가 국채 발행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안심된다.

다만 대부분의 예산이 복지·안전 등 현실 보완 위주의 지출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닥칠 저성장시대에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살려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강화하며 경제잠재력과 성장동력을 배양하기 위한 더욱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 노력이 다소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이 부진해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힐 경우 기대보다 재정적자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산 심의 때 국회가 편의에 따라 정부안에서 마음대로 증액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정부안의 삭감만 용인하고 증액은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예산법률주의에 입각한 재정준칙이나 '재원안 동시제출제도(PAYGO)'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G

Contents

192호
2013.01.14 통권 293호

표지 이야기 | 지난 1월 6일 부산 동래구의 한 호텔이 주최한 '집신걷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출발에 앞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 해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액막이 행사인 '집신걷기대회'는 올해로 아홉 번째다. 사진·중앙일보 송봉근 기자

기획특집

희망아 솟아라! 2013 대한민국

2013년 정부 예산이 새해 첫날 국회에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지출항목별로 증감은 있었지만, 총지출규모에서는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했다.

29

01 Reader & Leader | 2013 예산에 거는 기대
30 기획총론 | 민생 돌보고 활력 살리는 올해 나라살림
32 양육·교육 | 양육비 걱정 뚝! 쑥쑥 크는 꿈나무
34 안전한 생활·환경 | 밤거리는 든든, 학교생활은 안심!
36 문화·체육·관광 | 문화 살리고, 경제 살리고!
38 일자리 | 희망 키우는 일자리, 재취업 쉬워진다
40 중소기업·소상공인 | 한국형 히든 챔피언 키운다
42 농어업인·보훈 | 농어업 경쟁력 높일 여건 형성에 주력
44 취약계층 지원 | 촘촘해진 복지! 보듬고 다듬어주고…
46 전문가 기고 |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균형을 잡다

48

특별기획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48 국가대표 훈련 현장 | 구슬땀 훈련, 결과보다 값지다!
50 스페셜스카프 캠페인 | 씨줄·날줄로 엮은 사랑의 목도리
52 아트 링크 프로젝트 | "스페셜올림픽, 예술작품으로 응원해요"

이명박정부 국정운영성과 ①
06 경제 | 3만 달러 시대 기반 닦았다
10 녹색·미래 | 글로벌 미래 여는 녹색성장 선도국가

54

16

정책뉴스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12 "국민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달라"
14 부처별 업무보고, 인선작업 진행

04 독자마당
16 인터뷰 |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_상생의 문화로 갈등 치유하라
20 뉴스현장 | 전력 수급불안, 블랙아웃 남의 일 아니다
22 뉴스현장 | 절전경영 우수사례_전력위기 극복에 기업도 나섰다
24 정책 해설 | 새 연금저축제도 도입_5년 붓고 15년 이상 탄다
26 숫자로 본 대한민국 |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0%"
27 그래픽 뉴스 | 2013년 이것이 달라져요
54 정책초점 | 국민 모두가 문화 향유하는 그날까지…
56 공감 초대석 | 이돈구 산림청장
58 나는 한국인이다 | 귀화 무산된 축구선수 에닝요
60 정책현장 | 백두대간 생태계 되살아난다
61 파랑새를 찾아서 | 명백한 실수!
62 문화공감 |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내한공연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17 | 함께해요!
64 소통과 공감 | 때로는 둔감도 미덕이 된다

위클리 공감 korea.kr/gonggam
발행일 2013.01.1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887
정기구독 희망하시는 분은 02-2625-3294로 연락주십시오. 현재 구독자이지만 구독을 희망하지 않으신다면 02-2625-3294 또는 jjsmall@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독자마당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월 29일(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Weekly 공감〉 '새해맞이 가족사진' 공모

〈위클리 공감〉에서 2013년 '새해맞이 가족사진'을 공모합니다. 간단한 사연과 함께 추억이 깃든 가족사진을 보내주세요. 집에서든 여행지에서든, 가족 사랑과 행복을 보여주는 밝고 따뜻한 사진이면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채택된 분께는 〈위클리 공감〉에 사진을 게재하고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1월 27일까지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접수 gonggam@korea.kr
시상내역 문화상품권
문의 02-3704-9887

접수내용
▶ 2MB 이상 JPG파일
▶ 우리 가족의 새해 소망 한마디, 사진 관련 간단한 사연
▶ 이름·나이·주소·연락처

지난호를 읽고

3대째 가업 잇는 청년 대장장이 반가워

어렵고 힘든 일은 누구나 기피하는 것이 요즘 세태입니다. 그래서인지 191호에서 3대째 대장장이 일을 이은 강단호 씨 기사에 눈길이 갑니다. 값싼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중국산으로 인해 어려움도 많겠지요. 그런데도 장인의 길을 묵묵히 걷는 강씨가 새삼 대견스럽습니다. 전통을 잇는다는 자부심과 청년다운 창의력으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장명화 (주부 · 경남 양산시 소주동)

깨알 같은 재미가 있는 〈위클리 공감〉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공감코리아' 사이트를 처음 접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사이트였지만 〈위클리 공감〉의 알찬 내용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난 호 기사들까지 찾아 읽게 되더군요. 정부 정책 홍보지라는 선입견과 달리 콘텐츠가 다양해 읽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정책 이슈까지 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 있어 더욱 마음에 듭니다. 스크랩할 기사도 많고, 부담 없이 매주 읽을 수 있어 좋습니다.

이정란 (주부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알찬 기획특집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190호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기획특집 기사에서 편견과 차별의 벽을 뛰어넘어 "우리는 똑같다"고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이 미미한 상황에서 근간에 보기 드물게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늘어나는 세상이 오기 바랍니다.

최석원 (자영업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성폭력 대책 자세히 알게 돼 도움 커

뉴스에서 성폭력 사건을 접할 때마다 같은 여성으로서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흉흉한 소식에 "내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폭력 피해자가 그 상처와 부담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정책 변화가 무엇보다 반갑게 다가옵니다. 국선변호사 제도를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하고, 피의자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여성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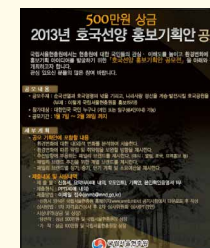
한다혜 (취업준비생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국토해양부 '스마트 구조대' 앱 서비스

국토해양부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급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위급상황 통합신고(스마트 구조대)' 앱은 경찰청(112) · 소방방재청(119) · 해양경찰청(122) · 산림청(1688-3119) 등 유관기관에 위급한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위급상황을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의 장점을 살렸습니다. 신고 서비스 외에 응급처치방법, 위기상황시 대처요령, 생활안전수칙 등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매우 요긴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범위 범죄 · 화재 · 해양사고 · 산악신고
전화신고 경찰청(112), 해양경찰청(122), 소방방재청(119), 산림청(1688-3119)
문자신고 경 · 위도, 주소, 긴급상황 등 (112, 122, 119)
주요기능
▶ 사고 유형의 선택에 따라 관할기관 긴급전화로 자동 연결
▶ 문자메시지를 자동생성해 전송
▶ GPS 등 위치정보 확인 불가시 상호, 지명 등으로 위치 확인
▶ 문자신고시 현장사진 첨부 가능
▶ 지도화면에서 주소를 확인하고 동시에 전화할 수 있는 신고 가능
▶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에 우선 서비스. 향후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범위 확대 예정
문의 044-201-3462

호국선양 홍보기획안 공모전

국립서울현충원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기획안을 공모합니다. 공모전의 주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호국공원을 조성하자(부제 : 이렇게 국립서울현충원을 홍보하라)'이며 추진 방향에 부응하는 '패밀리 브랜드'를 제안하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당선작 500만원, 가작 100만원의 상금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장의 상장을 수여합니다.

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구성(4인 이내) 가능
공모내용 호국공원조성(국립서울현충원 홍보)을 주제로 한 '패밀리 브랜드' 기획
공모기간 2013년 1월 7일~2월 28일
응모방법 이메일(snmb@mnd.go.kr) 접수
시상내역 당선작 상금 500만원 및 국립서울현충원장 상장
가 작 상금 100만원 및 국립서울현충원장 상장
유의사항
▶ 출품작은 신청서, 요약1부, 기획안, 본인확인증명서 1부
▶ 참가신청서의 요약 란에 전체 내용을 4매 이내로 기입(12포인트, 줄 간격160%)
▶ 기획안은 파워포인트 40매 내외로 작성
▶ 패밀리 브랜드별 장기, 중기, 단기계획 및 소요예산 기술
▶ 1차 자격요건 심사 후 2차 심사위원회 심사(PT경연)
문의 02-811-6339 www.snmb.mil.kr

낱말맞추기

			1		
	2		3	4	
5					
			6		7
8					
	9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월 24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3. 산등성이의 준말.
5. 돌담길 산책길로 유명한 고궁.
6. 음식 등에 들어있는 소금 성분.
8. "오는 3월부터 만 0세부터 5세까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양육수당과 보육수당을 ○○합니다."
9. 병이나 경기 등이 차츰 나아지는 상태.

세 로
1. 빈칸에 들어갈 말은? "2013년도 정부 ○○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 "제18대 대통령직 ○○○○○가 공식 출범해 정부 인수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4. "앞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의 장학금 혜택은 대폭 늘어나고 ○○○ 부담은 확 줄어들 전망입니다."
6. "2013년부터 ○○○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새로 도입돼 고소득자는 과도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7. "새해부터 ○○ 생활 수급자 3만 명을 추가 지정하고,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54만6,000원으로 오릅니다."

〈Weekly 공감〉 190호(1월 2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짜임새 3 누리 4 해당화 6 지체장애인 8 자신감
세로 1 짜리 2 새해 3 누룽지 5 당선인 7 애독자

〈Weekly 공감〉 190호 '공감 퍼즐' 당첨자
곽민희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한명기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염대중 · 대전시 중구 태평동
정태환 · 전북 군산시 문화동
이유범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중앙포토

수출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들이 부산항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2012년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3만 달러 시대 기반 닦았다

글로벌 위기 이겨낸 한국경제… 20-50클럽 가입,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취임 직후부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폭풍을 헤쳐 나가야 했다. 여기에 원유, 원자재,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5년이 지나는 동안 정부는 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성과를 올렸다.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국민소득 2만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의미하는 20-50클럽에도 가입됐다. 소득분배구조 개선이 이뤄졌다.

무디스 Aa3, 피치 AA-, S&P A+.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서 매긴 한국의 신용등급이다. 이들은 2012년 8월과 9월 잇달아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주요 선진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상황에서 상향조정한 것은 이례적 일로 꼽힌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경제대국 일본보다 높은 상태다. 2011년 이후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모두 등급을 상향조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들이 일제히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배경에는 지난 5년간 한국경제가 보여준 저력이 있다. 그 사이 한국은 두 번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까지 상승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물가를 잡으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야 했다. 여기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한 소득불균형과 상대빈곤층 확산이라는 난제도 정부를 기다렸다.

악재로 가득했던 5년이었지만 이명박정부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했다.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특히 2012년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도 크게 둔화했다. 기업환경 개선으로 창업도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청와대가 1월 6일 발표한 '이명박정부 국정성과'에는 한국경제가 이뤄낸 성과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이명박정부는 출발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악재를 맞이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2011년에는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발발했다. 두 번의 경제위기로 세계경제에 불황의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유로존과 일본은 아직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에 머물러 있다.

두 번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하지만 한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통해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냈다. 5년 전에 비해 경제규모는 10퍼센트가 성장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경제성장률도 세계경제 성장률 2.9퍼센트보다 앞선 3.0퍼센트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한 점도 주목할 일이다. 20과 50은 각각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의미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 2만 달러에 진입했고, 인구는 지난해 6월 5,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으로는 최초의 사례다.

20-50클럽 가입은 우리 경제가 규모 확충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의미다. 20-50클럽은 3만 달러 시대로 향하는 교두보로 통한다. 가입 국가 대부분이 수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에 성공했다. 미국은 9년, 영국은 7년, 일본은 5년, 독일은 4년 만에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 20-50클럽 가입 이후 3만 달러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무역분야에서 이룬 성과도 있다. 2010년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했고, 2011년에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 지금까지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미국·독일·일본과 같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 뿐이었다.

글로벌 교역이 크게 둔화했지만 한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신흥국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에 성공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해외 에너지·자원 공급기반을 확충한 일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부품소재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무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품소재 무역흑자 규모는 2003년 62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868억 달러로 크게 확대됐다. 2012년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 골고루 분배되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하던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정부는 이전 정권과 달리 개선된 소득분배지표를 새 정부에 넘겨줄 전망이다.

양극화 지수를 평가하는 수치로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법이 있다. 수치가 낮을수록 양극화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8~2011년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은 2003~2007년에 비해 각각 0.003퍼센트와 0.02퍼센트가 줄었다. 글로벌 경제위기 가운데 소득분배가 개선된 이유는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세법제도 개선 결과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감세혜택의 51퍼센트(63조8,000억원 중 32조5,000억원)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돌아가게 됐다. G

글·조용탁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2011년 12월 7일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 삼성역 사거리부터 코엑스사거리까지 총 거리 650미터 구간을 무역대로로 지정했다.

♣ 경제성과

두 차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2008~2012)

* '08년 3분기 당시 각국의 GDP를 100으로 할 경우 국제비교

국가	2012년 2분기
한국	111.3
미국	102.7
일본	100.4
EU	98.6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세로축: 88, 92, 96, 100, 104, 108, 112 / 가로축: 2008 3분기, 2009, 2010, 2011, 2012 2분기

자료 : 각국 중앙은행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주요국가 20-50클럽 가입 시점 /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시점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한국
주요국가 20-50클럽 가입 시점	1987년	1988	1990	1990	1991	1996	2012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시점	1992년	1997	2004	2004	1995	2003	?

무역 1조 달러 시대

연도	무역액	순위
2005년	5,457억	12위
2006	6,348억	12위
2007	7,283억	11위
2008	8,573억	11위
2009	6,866억	10위
2010	8,916억	9위
2011	1조796억	9위

3대 신용평가사별 한국 국가신용등급 변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KOREA 국가신용도 「맑음☼」

무디스	피치	S&P
A1 → Aa3	A3 → AA-	A → A+

세계 3대 신용평가사 | 무디스, 피치, S&P

최근 주요국 신용등급 강등 추세 속에도 유독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향된 까닭은...

- 북한 리스크 축소
- 재정 건전성 강화
- 우호적인 정책환경
- 양호한 순대외부채

♣ 녹색성장

녹색 일자리 투자

2009~2011년 총 56조원 녹색부문에 투입

핵심 녹색 R&D 인력 80,681명 양성

고용유발 효과 764,000명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12년 5월

4대강살리기 효과

16 4대강 본류에 16개 보 건설

7.2억m³ 수량 7.2억m³추가 확보

4.5억m³ 4.5억m³준설로 200년 빈도의 대규모 홍수에도 안전

1,757km 자전거길 1,757km 조성

130km² 수변생태공원 130km²조성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환경분야의 IMF'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글로벌 미래 여는 녹색성장 선도국가

녹색기후기금 유치,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녹색성장 중심 미래전략 펼쳐

녹색성장(Green Growth).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환경과 경제가 함께 가는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선포한 뒤 주요 정책 화두가 되어왔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5년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이 비전이 세계가 공감하는 큰 흐름이 되면서 녹색성장은 이제 '한국발 세계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10월 29일 방송된 제10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렇게 밝힐 정도로 정부의 자부심이 담긴 단어가 녹색성장이다.

녹색성장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신성장 패러다임을 위한 글로벌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이명박정부는 2012년 10월 20일 '환경세계은행'으로 불리는 세계녹색기후기금(GCF)의 인천 송도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의 선도국가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0년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설립하고 2012년 6월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20정상회의에서 GGGI를 국제기구로 인정받았다.

GCF는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비전 제시와 GGGI 설립, GCF 유치로 우리나라는 확실한 녹색성장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국내에서도 녹색성장비전 선포 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등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했다. 2009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의 30퍼센트 수준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으며, 2012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마치는 등 효율적 저탄소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2009~2013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2퍼센트 규모로 녹색기술 개발과 산업화 지원,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등 녹색성장에 대한 재정투자를 계속해왔다. 그 결과 리튬 이차전지 시장점유율 세계 1위, 발광다이오드(LED) 소자 생산 세계 2위 등 짧은 시간에 녹색산업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2009년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4대강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문제 대비와 수질·생태계 개선, 친수개발의 종합 해법으로 녹색성장정책의 한 축을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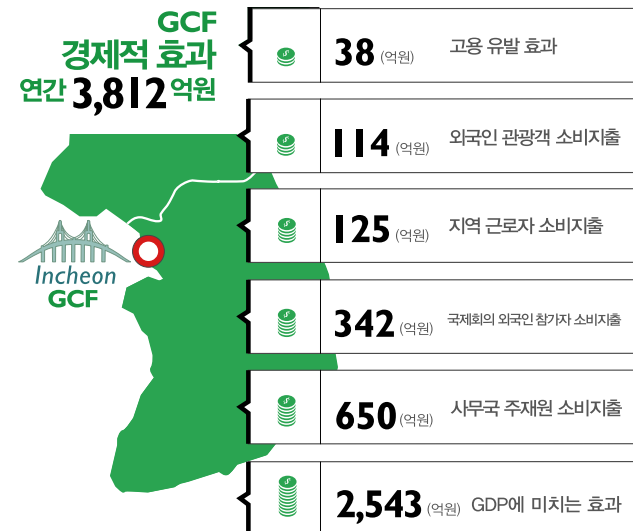
4대강살리기를 통해 16개 보(洑)가 들어서 팔당댐의 3배(7억2,000만 입방미터)의 수량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4억5,000만입방미터의 준설과 제방 보강으로 200년 빈도의 대규모 홍수에도 안전하게 됐다. 동시에 1,757킬로미터의 자전거길이 조성됐다.

녹색성장과 종합 친수개발 해법, 4대강살리기

그동안 4대강살리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엔환경계획(UNEP) 등으로부터 녹색사업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태국·모로코·페루·파라과이 등은 우리나라와 양해각서(MOU) 체결하는 등 4대강살리기를 벤치마킹했다.

이명박정부의 미래 대비는 녹색성장에 그치지 않았다. 먼저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2008~2012년 연구개발(R&D)에 총 68조원을 투자했다. 이는 이전 10년간 투자규모(63조2,000억원)보다 4조8,000억원이 많은 것이다.

재정지원뿐 아니라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한 '한국형 그랜트 제도'를 새로 도입했고, 총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자들이 세부 연구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연구할 수 있는 '묶음예산'을 2008년 35.6퍼센트에서 2012년 51.2퍼센트로 확대했다.

미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헬스 관련 서비스산업 활성화에도 나섰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보건의료 R&D 선진화에 착수했다. 2011년 대구·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착공했고, 신약개발과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 등을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미래의 국가 성장 핵심 클러스터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도 확정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5조1,700억원을 투자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전·세종·천안시와 청원군을 중심축으로 한 트라이앵글 형태로 조성한다.

대전 등 중부권의 기초연구 중심지에는 첨단 기초과학 연구의 초석이 될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서며, 광주권과 대구·포항·울산권의 거점지구에도 각각 글로벌 이공계 인재들이 배치되는 기초과학연구단을 운영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동력 창출을 위한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2008년 11월 IPTV를 출범시키는 등 방송통신 융합을 통해 미디어산업 혁신을 유도했다. IPTV는 2012년 11월 가입자 600만 명을 돌파했다. 2012년 12월 말에는 지상파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했다.

이밖에도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2007년 4.2퍼센트 / 2011년 13.7퍼센트)과 유연탄·우라늄·철광·동·아연·니켈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2007년 18.5퍼센트 / 2011년 29퍼센트)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한 셰일가스에도 일찌감치 눈을 돌렸다. 2011년 9월 셰일가스 개발·도입 및 활용전략을 발표했으며, 2012년 1월에는 미국산 셰일가스 구매계약(2017년부터 연간 350만 톤)을 성공적으로 체결해 미래의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길을 열었다.

글·박경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1월 6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달라”

자문위 없이 ‘차분한’ 정부에 초점… 11일부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박근혜 제18대 대통령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 준비를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월 6일 공식 출범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과 함께 취임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새 정부 출범 준비에 바쁜 와중에도 박 당선인은 대한상공회의소·노인회 등을 찾아 민생행보를 펼치며 따뜻한 성장론을 제시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월 6일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가졌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구로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수위는 새 대통령의 취임 전날까지 활동하며 당선인이 맡게 될 새 정부의 정책 일정을 구성하는 업무를 맡는다.

박근혜 당선인은 현판식에 이어 인수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첫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국민의 삶을 인수위 최고의 가치로 삼고 50년이 지나도 모범적인 인수위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에 앞서 지난 1월 4일 9개 분과 간사 등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을 발표했다.

9개 분과, 26인으로 구성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먼저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에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이 임명됐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에는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가 인선됐다.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는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 정무분과 간사에는 박효종 서울대 교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에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임명됐다. 경제1분과 간사는 류성걸 의원, 경제2분과 간사는 이현재 의원이 맡았으며,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에는 이혜진 동아대 로스쿨 교수가 인선됐다. 이어 교육과학분과 간사는 곽병선 전 경인여대 학장, 고용복지분과 간사에는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 여성문화분과 간사는 모철민 예술의전당 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밖에 대통령당선인비서실 정무팀장에는 이정현 최고위원이, 홍보팀장에는 변추석 국민대 조형대학장이 임명됐다.

규모 줄이고 차분하게 출범 준비

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지난 1월 7일 김용준 위원장 주재로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향후 ‘차분한’ 정부 출범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명백히 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인수위가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1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자문위원제는 여러 가지 폐해와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다만 인수위 분과별로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기 위한 경우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1차 전체회의에서 박 당선인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며 이쪽저쪽이 따로따로 돈을 들여 정책을 만들면서 세금이 낭비되고 효율성도 낮아진다”며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9일 인수위 출범 후 첫 정책행보에 나서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세계경제 침체로 국내경기도 많이 어렵다”며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따뜻한 성장’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또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불균형·불합리의 ‘3불’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대출 문제를 해결해 더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인수위원회	
· 위원장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 부위원장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대변인	윤창중 언론인
· 행정실장	임종훈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 위원 옥동석 인천대 교수 위원 강석훈 의원
· 정무분과	간사 박효종 서울대 교수 위원 장훈 중앙대 교수
·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 김장수 전 국방장관 위원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수석 위원 최대석 이대 교수
· 경제1분과	간사 류성걸 의원 위원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장 위원 홍기택 중앙대 교수
· 경제2분과	간사 이현재 의원 위원 서승환 연세대 교수
·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 이혜진 동아대 로스쿨 교수 위원 이승종 서울대 교수
· 교육과학분과	간사 곽병선 전 경인여대 학장 위원 장순흥 과학기술대 교수
· 고용복지분과	간사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 위원 안종범 의원, 안상훈 서울대 교수
· 여성문화분과	간사 모철민 예술의전당 사장 위원 김현숙 의원
·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 위원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대통령당선인실	
· 비서실장	유일호 의원
· 정무팀장	이정현 최고의원
· 홍보팀장	변추석 국민대 조형대학장

박 당선인은 이어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를 찾아 “행복한 노후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노인복지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당선인은 노인복지공약으로 제시했던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신체장애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등의 실천을 재차 강조했다. G

글·박경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1월 7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처별 업무보고, 인선작업 진행

정부조직 개편 16일 시안 마련… 정부 명칭 2월 중순 확정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월 11일부터 1주일동안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조직개편과 인선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까지 인선 작업은 계속된다.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를 구현하기 위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걸음이 시작됐다.

인수위는 지난 1월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간사단 회의를 갖고, 11일부터 17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7일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업무 현황 및 당면 과제 파악과 대통령당선인의 공약 이행 등을 위한 부처별 업무 보고는 하루 1분과별 1부처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소관부처가 많은 분과위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인수위는 업무 보고를 위해 각 부처에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 제시한 주요 공약을 기초로 보고자료 작성을 요청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를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정책공약집은 ▶국민대통합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부처 일반현황 ▶기존 추진정책 평가 ▶당면 현안과 주요 추진계획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담고 있다.

약속과 책임 지키기 위한 준비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는 지속추진, 보완 또는 재검토 정책으로 구분해 제시하며, 당면 현안의 경우 새정부 출범 직후(3개월 이내) 당장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보고한다.

대통령당선인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공약별 세부 이행계획과 함께 5년간 소요재원 추계와 부족재원대책을 부처별로 제시한다. 예산절감계획의 경우 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비 절감과 어려운 경제 여건, 그리고 서민생활을 감안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의 10퍼센트 절감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는다.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계획의 경우 그동안의 경영 및 개혁성과를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공약 등에 맞도록 기관 운영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전 조각 작업 완료를 목표로 정부조직 개편과 국무총리·국무위원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각 작업은 국회 법안 처리와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각 당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1월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개요'를 보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선을 위한 세부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행안부는 역대 인수위 일정과 활동을 참고해 이번 자료를 작성했다.

행안부의 운영 개요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이 임명할 초대 국무총리는 1월 20일 전후 지명될 전망이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선도 함께 진행한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월 5일까지, 국무위원 후보자는 내달 5까지 인선 발표한 후 20일까지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조직개편 작업은 오는 1월 16일까지 시안을 마련,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부처별 조직 및 인력 조정을 거친 후 취임식 이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인수위에 소속된 현직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늦어도 1월 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 총리 등을 제외한 국무위원 인선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가능하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부처 업무 보고 일정

업무 보고 분야	부처별 일정	
경제 분야	11일	중소기업청·보건복지부
	12일	국세청·지식경제부
	13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국가보훈처·원자력안전위원회
	14일	고용노동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청
	15일	교육과학기술부·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금융위원회
	16일	농림수산식품부·관세청·조달청·농촌진흥청
	17일	해양경찰청·통계청·산림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비경제 분야	11일	국방부·문화재청·기상청
	12일	국가정보원·법무부·대검찰청
	13일	방위사업청·경찰청
	14일	외교통상부·감사원·소방방재청·국민권익위원회
	15일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병무청·법제처
	16일	국무총리실·통일부·방송통신위원회
	17일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특임장관실·대통령실

국민과 소통하는 새정부로

박 당선인이 이끌 정부의 명칭과 국정과제 선정은 2월 중순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 정부의 성격과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정부 명칭은 내부토론, 전문가 의견수렴, 대국민 공모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도 나서 인수위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2013.kr)에 '국민제안센터'를 설치,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각종 민원을 접수키로 했다. 인수위 홈페이지가 개통되는 대로 운영될 '국민제안센터'에는 누구든지 정책 제안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도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인수위 홈페이지에 '국민성공제안센터'를 개설해 각종 아이디어를 수렴한 바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상생의 문화로 갈등의 상처 치유하라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 찬란한 한국문화 전세계에 꽃피울 시기 왔다

이어령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당대의 석학으로 꼽힌다. 사회와 문화, 역사에 대한 깊고 애정 있는 시각으로 세상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 우리 사회의 원로다. 그는 "한국에는 경쟁 상대조차 존중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상생의 문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런 문화를 가진 것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커다란 축복"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13년 새해 첫날 KTV를 통해 문화국가 대한민국이 나아갈 상생의 길을 이야기 했다. 한국 사회를 향해 던지는 원로의 싶고 따스한 목소리를 지면을 통해 생중계한다.

2013년 새해가 밝았다. 2012년 대한민국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하우스푸어와 워킹푸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세대간, 계층간 갈등도 심해졌다. 소득·주거·취업 분야에서는 양극화 골이 더욱 깊어졌다. 치열했던 제 18대 대통령선거도 한국 사회에 커다란 분열과 대립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일 KTV에서 방영된 특집 프로그램 '2013 코리아 새희망 새시대'에 출연한 이어령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말은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한다. 이 전 장관은 새 정부에 많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조언을 시작으로 한국이 겪는 갈등의 원인과 이를 치유할 수 있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함께 논하며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정부 자체가 새롭게 변했다고 생각해서지요. 언론은 새 정부에 계층 갈등을 허물어 줄 탕평책을 주문합니다. 하지만 새로워져야 할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 전 장관은 선거는 국민이 했다고 지적한다. 국민이 선택해 세운 정권이라는 말이다. 치열한 경쟁을 벌인 상황에서 대통합을 바라는 것 자체가 안이한 생각이다. 투표권자가 투표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몇 퍼센트로 이기고 졌는가 여전히 그 잔상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선거 때 누구를 선택했던 정부는 우리 국민의 것이며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투표권자들이 서로 안아줘야 정치인들도 따라하기 시작한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관용의 모습을 보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이 전 장관은 국민이 움직이면 정부는 알아서 따라 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새로 투표해 대통령을 100번 다시 뽑아도, 국민이 그대로라면 변화는 없습니다. 반면 국민이 새로워지면 정부도 새로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다 같이 변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새로워져야 정부가 바뀐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였기에 여러 갈등 요인이 차례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은 갈등이 새로 발생했다기 보다는 물밑에 쌓인 퇴적물이 선거라는 물살을 타고 떠오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왜 이런 극심한 갈등의 요소가 떠오르게 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원천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을 논하기에 앞서 할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극심한 갈등과 양극화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됐을까요. 한국 고유 문화에서는 이정도 수준의 양극화를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문화에는 양쪽을 모두 아우르며 해원상생하는 풀이의 철학이 깊게 배여 있습니다. 언어에서도 이런 면면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원 섭섭이나 버려둬라는 모순어법이 그렇지요. 시원한데 섭섭합니다. 버리라면서 그대로 놔두라는 말을 합니다. 이를 중간언어라고 합니다. 흑과 백을 매번 명확하게 나누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이며 새로운 맛을 내는 비빔밥, 다섯 가지 색상이 모여 서로 얽혀 색다른 맛을 자아내는 오훈채의 나물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형태입니다."

그는 양극화를 서양의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의 문화에서 비롯된 산물이라고 본다. 둘 중 하나가 사라져야 끝나는 혁명 문화가 일제 해방 후부터 한국땅에 좌우 이념으로 대두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일제 강점화에서 친일과 반일로 분열되고 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한국에서는 모든 국면에서

문화는 그 자체로 즐겁고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한류가 인정받았고, 앞으로도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비단 한류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한국 고유의 문화에 있는 상생의 정신과 포용의 문화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현상과 그 흑백 논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면에 번져나가고 심지어는 세대 간의 단절로 이어지기도 했다. 친일파와 독립투사 사이 매울 수 없는 골이 생겼다. 해방 직후 처절했던 좌우익의 대립이 있었다. 투표 때 마다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 갈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한국은 국토만이 아니라 의식의 내부에서도 분단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나를 비롯한 한국의 80대는 서로 다른 계층을 향한 증오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경험했다"며 "서로를 보듬어 주는 치유·상생의 문화만이 사회적 갈등을 치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 상생은 어떻게 시작될까? 이 전 장관은 먼저 로스 로스가 아닌 윈윈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전체 그림을 그리려면 곳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지 않고는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가는 역사의 응어리를 풀어가기 힘들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노인과 젊은이들 사이의 갈등도 소통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욕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왜 그 추운 날 80을 넘긴 노인들이 제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투표장에 나왔을까. 바로 보수 골통이라고 비웃는 그 손자들의 자유와 앞날을 지켜주기 원해서이지요. 고생하며 이룩한 나라를 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룩한 놀라운 기적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그들의 땀과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부정적으로만 보이든 완고한 것 같은 노인들의 생각에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꾸로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뭉쳐서 한 결같이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위험시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비판적 지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상처를 보듬는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상생은 이해에서 시작한다

그는 소통을 위해서는 주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 나쁜 사람 두 명 불러서 이야기하라면 눈만 껌벅거리다 만다.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먼저 명확한 주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할 환경과 나눌 문화 콘텐츠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 전 장관이 항상 문화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이유다. 성숙한 문화를 가진 사회는 상처를 치유하며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미국의 힘은 소프트 파워에서 나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파악한 미국은 문화의 힘을 키워 나가기 위해 주력합니다. 그들의 문화 전략은 매우 고차원적입니다. 정치나 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아무것에도 매여 있지 않은 순수한 문화입니다."

이 전장관은 한국 문화도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놓치지 말아야 할 점도 있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치면 고유의 우월한 DNA가 있다고 믿게 된다. 우리에게만 있는, 우리만의,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우월한 문화 DNA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쉽게 문화 제국주의에 빠지게 된다.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나치 독일이다.

이 전 장관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의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이며 인정받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는 세계를 들썩이는 한류 스타의 저력은 문화에 있는데, 한국적인 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라고 말한다. 한류가 K-pop이라는 형태로 접근했기에 큰 저항 없이 온 지구로 펴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문화는 그 자체로 즐겁고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한류가 인정 받았고, 앞으로도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비단 한류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한국 고유의 문화에 있는 상생의 정신과 포용의 문화가 세계를 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풀어야 신바람 난다

이 전 장관은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몇 가지를 꼽았다. 먼저 국제사회에서의 위치가 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올라온 유일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다. G7 국가는 다른 나라를 군사적, 경제적 힘으로 굴복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며 지금의 위치에 올랐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수 많은 침략을 받으며 고유의 민족성을 지켜내며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를 키워나갔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만 승부를 마친 다음상대를 포용해 왔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많은 종교들이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이는 서로 다름을 넓고 깊게 포용하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의미지요. 우리는 주위에서 싸우면 그만 싸우고 풀라고 말합니다. 풀지 않으면 신바람이 나지 않지요. 신바람의 대전제는 푸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잘못한 일을 풀어주는 것을 해원이라고 합니다. 원한을 품으면 상생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푸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관용과 해원 사상입니다. 우리가 가진 전통에 이런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세계를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유·평등·박애. 프랑스 혁명의 근본 정신이다. 이 세가지가 합쳐지며 서구 근대 국가가 형성됐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정신이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자유는 경제원리에서 평등은 정치 사회원리로 양립할 수 없는 극으로 치달아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다. 자유와 평등을 어우른 사회는 문화원리인 박애의 힘에 융합될 수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박애는 동지애, 우애의 의미인 프라테르니떼(fratenite)였다. 그 때문에 좌우의 이념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한 체 오늘에 이른 것이다.

한국은 다르다. 모순을 조화하고 원한을 푸는 생명력 고난을 극복하는 끈질 긴 민중들의 지혜가 여러 사상을 융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냈다. 한민족에는 무한 경쟁의 자유와 더불어 사는 평등의 양립불능의 것을 한 솥에 끓일 수 있는 가마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불과 물은 서로 상극하나 그 사이에 가마솥이 있으면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결국 문명을 뒷받침하는 것은 문화입니다. 정치나 경제로는 풀지 못하는 갈등을 문화는 치유하며 상생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 중 단연 빼어난 것이 한국의 문화입니다. 한국에는 심각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이를 치유할 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명백합니다. 포용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지난해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갈수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G

글·조용탁 기자

전력위기 극복에 기업도 나섰다

에너지효율 평가제, 조명자동제어시스템 등 눈길… 에너지 경영 아이디어 만발

올 겨울 유례없는 한파에 산업계도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에 함께 나섰다. 1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산업계 동절기 절전경영보고대회'는 그 의지를 확인하고 다짐하는 자리였다. 보고대회에서 발표된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 모범사례는 절전운동을 가정까지 확산하는 촉매가 되고 있다.

삼성전기는 자체 절전시책을 통해 최대수요전력(피크전력)을 6퍼센트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동절기 절전훈련을 실시하고 피크전력을 1만7,100킬로와트에서 1만6,210킬로와트로 줄였다. 자율훈련을 도입한 배경에는 에너지경영시스템(EMS) 인증 취득이 있었다. 삼성전기는 2011년 말 국내 3개 사업장에 대한 EMS 인증을 취득하고 2012년 모든 사업장을 에너지 목표관리체제로 전환해 에너지 효율 20퍼센트 향상 시책을 추진했다.

이 회사는 에너지를 잡아먹는 저효율 설비를 과감하게 교체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설비와 공정상 소요되는 에너지를 분석해 저효율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바꿨다. 자체 도입한 에너지효율평가제는 에너지 소비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자체 에너지 효율 등급표를 만들어 설비별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해 개선점을 찾았다. 전사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실무협의체가 활동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경영층에 보고하는 체제가 강점이다.

이 회사는 또 모든 임직원과 에너지 절감의식을 공유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비용 효율화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어 임직원끼리 에너지절감 사례를 놓고 상호 토론을 벌인다. 우수 프로젝트는 회사 차원에서 포상해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에너지 절감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한다. 계절에 관계없이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레 임직원들의 친환경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03년 미국과 캐나다 동부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자 뉴욕 맨해튼의 직장인들이 일제히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 퇴근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중앙포토

삼성전기만의 또 다른 특징은 상생경영이다. 동반성장 인식에 바탕을 두고 협력회사에 에너지 절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 절약활동을 돕는다. 협력회사의 생산활동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 관련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해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공공기관과 똑같게 실내온도 섭씨 18도 이하 유지

에너지 절약을 가정에서도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기업도 있다. 포스코는 계열사와 협력사의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포스코패밀리그린워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그린워크 캠페인은 걷기, 끄기, 줄이기, 모으기의 네 가지 그린 액션을 실천해 그린 패밀리로 거듭나자는 운동이다. 그린워크 홈페이지(www.greenwalk.co.kr)를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한 녹색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를 나눈다.

산업계 겨울철 절전행동요령

구분	내용
난방설비	• 실내 온도를 건강온도(18~20℃)로 유지 • 체감온도 상승을 위해 내복 착용 • 중식시간 및 퇴근 1시간 전 난방기 가동 중지 • 점심·퇴근시 사무기기 및 온수기 전원 차단 • 개인용 전열기 플러그를 뽑고, 무릎담요 사용 • 전자온도계를 사무실에 배치해 실시간 온도를 시각화하고 자주 확인 • 난방효율 상승을 위해 창문 틈새를 막거나 기밀성 유지관리 실시 • 전기난방은 가급적 자제하고, 지역난방 또는 가스난방 활용
조업관리	• 정시 퇴근 생활화 • 조업시간 변경이 가능한 경우 생산활동을 토·일요일로 조절
조명설비 사무기기	• 저효율 조명(백열등)은 LED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 • 업무 및 작업 종료시간에 필수 조명만 남기고 일제히 소등 • 개인 PC를 사용하지 않을 시 절전모드 전환 설정
생산설비 전력공급	• 최대수요전력 감시제어장치를 설치하여 전력 위기에 대비 • 자가 발전기를 설치하고 가동 매뉴얼 마련 • 전력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 관리를 위해 설비의 가동시간 분산 • 가동하지 않거나 대기상태인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공회전 방지

겨울철 전력위기로 한국전력 상황실은 늘 비상상태이다.

중앙포토

포스코는 정기적인 탄소경영 보고서 발표로 에너지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에너지 감축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국내외 출자사, 외주파트너사, 공급사 임원으로 구성한 에너지 관리조직을 운영하며 각 사업소와 본사 차원의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해 에너지 절약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조명자동제어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포스코는 제철소 조명회로를 개선하고 원격 점·소등 시스템을 구축해 주간에 불필요한 조명을 끈다. 운전실에서 조명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설치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설비수명을 연장했다.

겨울철 전력 사용 절정시간대 전력 수급안정을 위해 전국 150여 회사 관련 건물에서 4만킬로와트의 예비전력을 확보한 점도 특징이다. 일반가정 4만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비축한 포스코는 전력수요관리제에 참여해 정부의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KT는 실내온도를 공공기관과 같은 섭씨 18도 이하로 유지하며 전력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 임원급 전사에너지경영위원회를 매달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절전경영을 실천한다. 최근 신규 LTE서비스 시설 증가에도 데이터 폭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클라우드커뮤니케이션센터(CCC, Cloud Communication Center) 기술을 도입한 것도 그 일환이다. CCC 기술은 전력 사용과 운용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린 통신망 기술이다.

KT는 저전력 장비로 대체하면서 전체 전력 사용량을 8퍼센트 이상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대형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 전구를 LED조명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다. LED조명은 기존 조명에 비해 40퍼센트 이상 절전효과가 있다. 또 에너지 사용을 자동 원격통제하는 시스템도 자체개발했다. G

글·김슬기 기자

연합포토

겨울철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이 실시된 10일 오전 단전이 된 서울 금호동 롯데아파트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주민을 구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수급불안, 블랙아웃 남의 일 아니다

에너지 경영 시스템 도입, LED 전구로 교체도… 절전 아이디어 만발

올 겨울은 유난스러운 한파 탓에 전력 수급불안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정전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대규모 정전에 대비한 훈련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처방전을 내놓았다.

'재난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전기가 끊어졌다. 컴퓨터는 물론 난방기도 작동하지 않는다. 충전지를 사용하는 휴대전화만 요란하게 울렸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묻는 전화가 쇄도했다. 신호등이 꺼져 도로에 선 자동차들은 우왕좌왕이다. 모든 조명이 꺼져 건물 안은 암흑으로 변했다. 가정의 온열기도 기능을 잃어 시민들은 밀려드는 한기에 온몸을 떨었다. 단 20분간 벌어진 정전에 대한민국이 정지했다. 겨울 정전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원시시대로 돌려놓았다. 사람들은 멍하게 시간이 지나길 기다릴 뿐이었다. 시간이 이처럼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가상 상황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유례 없는 한파 탓에 올 겨울에는 전력 수급불안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어느 순간 어느 한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20분간 일부 지역에 정전을 실시했다. '2013년 겨울철 정전 대비 위기대응' 훈련이었다. 이번 훈련은 전력 사용이 급증해 예비전력이 20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를 가정했다. 정부에서는 이 수준을 '경계·심각단계'라고 표현한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꼭 필요한 곳만 남겨놓고 불필요한 전력 사용은 모두 중지해 보자는 것이다. 향후 실제 정전상황에 빠졌을 때 무엇이 필요한 전력이고 아닌지를 미리 가려보자는 취지다.

예비전력량 8년 만에 반 토막

전력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대규모 정전상황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7일 이르게 찾아온 한파가 몰아치자 전국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다. 이날 오전 예비전력이 40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떨어져 전력조치 1단계인 '관심' 경보가 내려졌다. 한국전력은 배전시설의 전압을 조정하고 전력 수요관리업체에 요청해 공장의 절전을 요구했다. 다행히 급한 불은 껐지만 겨울철에도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문제의 해결책은 두 가지다.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거나 덜 쓰면 된다. 한국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 공급량은 매년 확대돼 2011년 7,718만킬로와트에 달했다. 그러나 전력 수요도 크게 늘어 같은해 최대 전력수요는 7,313만킬로와트까지 올라갔다. 이 때문에 예비전력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3년 810만킬로와트였던 예비전력량은 2011년 404만킬로와트로 8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그만큼 전력 공급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이다.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려면 훨씬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우라늄·석탄·석유·천연가스 등 비싸고 귀한 자원을 전력 생산에 투입하는 것이다. 더 효과적 방법은 역시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전기만 쓰고 절약하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데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전기의 가치를 높여야 절전의식 생겨

하지만 절전은 마음먹은 만큼 쉽지 않다. 이제까지 우리 국민은 전력이 부족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부족함을 알아야 귀함을 알듯, 전기의 가치를 높게 생각해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불가피하게도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가격인상이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가 1월 8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1월 14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0퍼센트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전기요금 인상 Q&A

Q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도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더 지게 되나?

A 아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은 매월 110킬로와트의 최소전력사용량을 계속 보장한다.

Q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일반 가정이나 산업체는 얼마나 더 많은 전기료를 부담해야 하나?

A 도시 가구는 월평균 4만6,600원에서 4만7,500원으로 930원 가량 더 늘어난다. 산업체는 평균 611만원에서 638만원으로 27만원 가량 요금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Q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선정돼 특례요금을 내고 있다. 이번 요금 조정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나?

A 지식서비스산업체는 현재 요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2014년까지 일반용 전기와 같은 3퍼센트 할인규정을 변경적용한다.

Q 소비자 부담만 늘리고 독점적 전기 공급자의 수익을 늘리는 것 아닌가?

A 정부는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전력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는 모두 절감하도록 할 것이다.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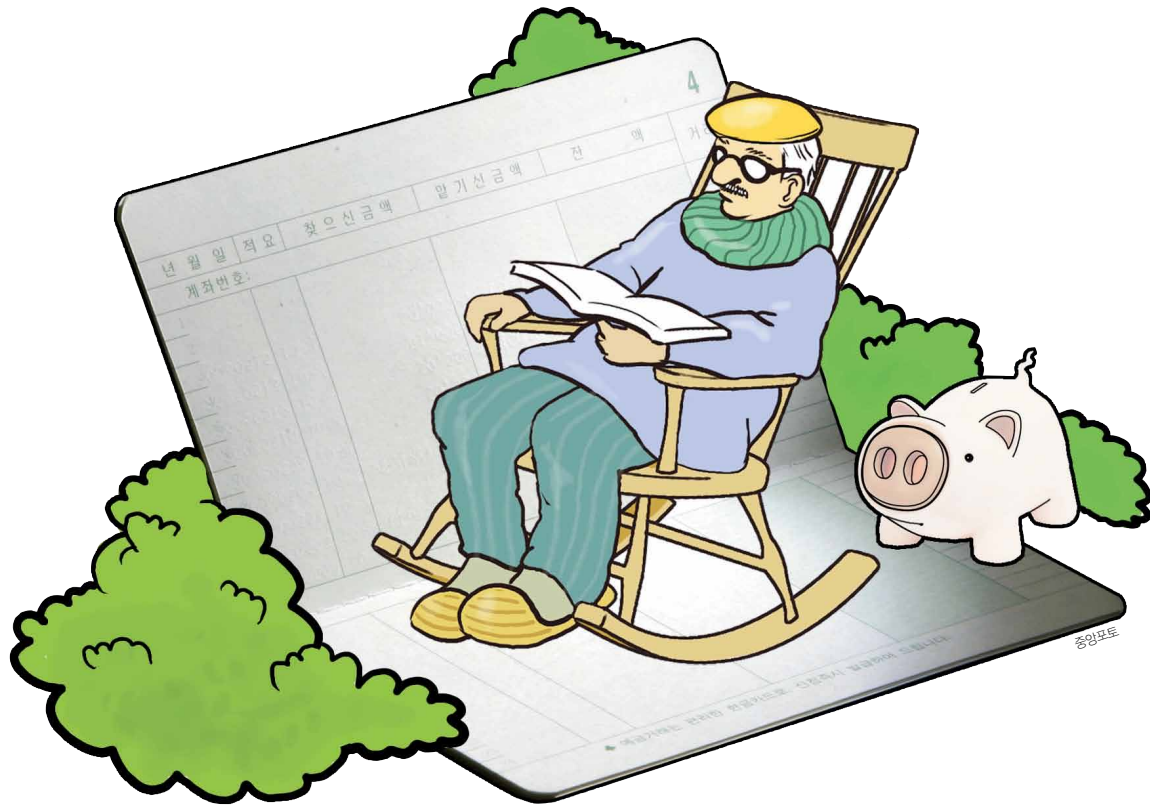
구 분	조정률	구 분	조정률
주택	2.0	가로	5.0
일반	4.6(저압 : 2.7,고압 : 6.3)	농사	3.0
산업	4.4(저압 : 3.5,고압 : 4.4)	심야	5.0
교육	3.5	평균	4.0

자료 지식경제부, 2013

지식경제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이 "어려운 동계 전력수급을 감안해 국민이 절전에 동참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최소한의 인상폭"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 가계에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전기요금 인상폭은 용도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된다. 일반 서민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는 평균 이하인 2.0퍼센트 인상에 그친다. 산업용과 일반용 등 고압 요금은 각각 4.4퍼센트, 6.3퍼센트로 인상률이 평균 이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용·일반용 저압 요금은 각각 3.5퍼센트와 2.7퍼센트로 평균 이하로 인상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고통을 대기업 등이 더 지고 그만큼 중소기업이나 시민들의 부담은 경감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다. G

글·박상주 기자

중앙포토

5년 붓고 15년 이상 탄다

12년 만에 개편…연금 납입한도 늘고 의무 납입기간은 줄어

고령화 시대다. 정부는 이에 맞춰 종전의 세제 혜택을 일부 개선한 새 연금저축제도를 준비했다. 새로운 연금제도는 최소 계약 유지 기간이 줄고, 세제 혜택을 확대한 장점이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연금 소득에 붙는 세금도 줄어든다. 12년 만에 개편된 새 연금저축제도를 소개한다.

가입조건과 세제혜택, 자산운용방식이 개선된 새 연금저축제도가 도입된다. 2001년 이후 12년 만의 변화다. 현행 연금저축은 저축, 보험, 펀드 등 상품별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이와 비교해 새 연금저축은 연금계좌를 통해 권역별로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하는 형식이다. 노후자금을 관리를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준비한 개편은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서 사적연금 시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금계좌 개념 도입

새 연금저축제도의 주요 변화로 먼저 연금계좌 개념 도입이 꼽힌다. 기존 연금저축에서는 연금수령은 5년 이상 받으면 됐다. 개편안에 연금계좌 개념이 도입되며 연금소득세 차등적용 및 연금수령한도를 새롭게 추가됐다. 앞으로 새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납입기간 동안의 소득공제와 연금 수령기간 동안 적용되는 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새 연금저축은 기존 연금저축보다 최소 계약 유지 기간(10년→5년)이 줄어들고 납입한도(분기 300만원→연 1,800만원)가 확대돼 보험료 납입이 편해졌을 뿐 아니라 연금수령은 길게 수령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확대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확대도 눈여겨 볼 점이다. 기존 연금저축에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합해 연간 600만원(매월 50만원)에 불과했던 분리과세 한도가 새 연금저축에서는 연간 1,200만원(매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공적연금이 분리과세 한도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도 연금소득의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매월 국민연금을 30만원 수령하는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간 분리과세 한도가 24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무려 5배 늘어난 효과를 볼 수 있다.

연금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도 나이에 따라 점점 부담이 준다. 기존 제도는 연금수령액에 일괄적으로 연금소득세 5.5퍼센트가 부과됐다. 개정 이후에는 연금소득세가 나이에 따라 3.3~5.5퍼센트로 차등 적용된다. 70세 이전에는 5.5퍼센트로 기존 연금저축과 같다. 하지만 70세 이후는 4.4퍼센트, 80세 이후부터는 3.3퍼센트가 적용된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세금 부담을 줄여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연금수령 기간 15년 이상

연금 장기 수령 유도를 위해 종전 연금저축에서 5년 이상이던 연금수령기간도 새 연금저축에서는 15년 이상으로 늘렸다. 새 연금저축에서는 연금수령한도가 새로 설정돼 연간 수령한도를 총액의 15분의 1로 제한한다. 한도를 넘으면 연금외 수령으로 간주해서 5.5퍼센트의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22퍼센트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의 장기수령을 권장하는 동시에 편중 수령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별다른 제한이 없는 퇴직연금도 의무수령기간이 생긴다. 앞으로는 퇴직연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처럼 최소 15년 이상에 걸쳐 나눠 수령해야 한다.

배우자 상속 가능

새 연금저축은 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이 용이해졌다.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 덕에 소득세 정산 없이 연금소득세만 내면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시 과세특례조항을 포함시켰다. 즉 피상속인의 연금 수령 지위를 상속인인 배우자가 승계할 경우 일시금 수령에 따른 소득세 정산 없이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해 세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55세가 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연금 잔액을 일시에 수령하면 소득세 정산 등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세제혜택을 감안해 배우자 상속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소득공제한도는 제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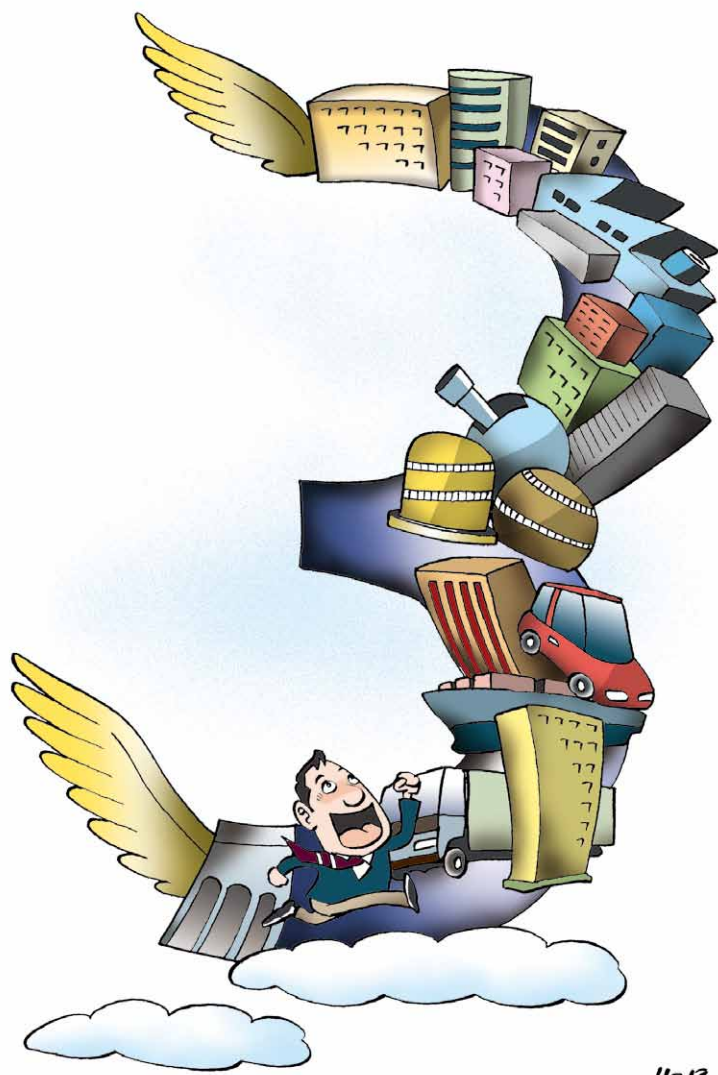
이번 연금저축 개편에서 아쉬운 점으로는 소득공제한도가 꼽힌다. 기존 연금저축(연 400만원)과 동일하다. 12년 만의 연금저축 개편이었기에 손보업계의 관심이 유난히 높았다.

미국에서는 운영중인 401K 연금의 공제한도가 1만6,000달러(약 1,700만원)인 점도 이번에 한도 확대를 기대하게 한 이유였다.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가입자도 늘어나 손보업계에 새로운 고객이 유입된다.

손보업계에서 공제한도 확대를 기다린 이유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됐기에 당분간 한도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G

글·조용탁 기자

새 연금저축 어떻게 바뀌나

현 연금저축	항목	새 연금저축
연 400만원	소득공제한도	동일
10년 이상 납입	의무납입기간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수령기간	55세 이후 15년 이상
연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퇴직연금 연 1,200만원과 별도	납입한도	연 1,800만원(분기당 한도 없음) *퇴직연금과 합산
2%	해지 가산세	없음
연금수령시 적립액(원금+이자)의 5.5%	연금소득세(지방세포함)	55~70세 5.5%, 71~80세 4.4%, 81세 이상 3.3%로 차등부과
저축·보험·펀드별 별도 운용	자산운용방식	연결계좌로 통합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0%”

3.0퍼센트.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다. 어느 해보다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나타난 저성장 기조를 반영한 결과다.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 등 국내외 다른 기관에서는 정부 전망치보다 대체로 조금 높은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다. 국내 국제금융 전문기관인 국제금융센터는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침체 완화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세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하는 대목이다.

2012	2013
민법상 성년 만 20세	민법상 성년 만 19세
병사 봉급/수당	봉급 15% 인상/수당 10% 인상
무주택근로자 월세공제율 40%	50%로 인상
112신고 제도	콜백 시스템 도입
고가항암제, 초음파검사, 틀니	건강보험 혜택 적용
영유아, 노인 필수예방접종 지원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최저생계비 149만5,550원	154만6,399원으로 3.4% 인상
누리과정 대상자	만 5세까지 확대
한글날	공휴일로 지정
난임가구 체외수정 3회 지원	4회에 걸쳐 지원
국민연금 수령 연령 만 60세	단계적으로 늦춰짐
경범죄 처벌항목 28개 추가	스토킹, 허위광고, 암표판매 등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도시가스요금 5% 감면, 차량 취득세 감면
수능시험	난이도로 A/B형 구분. 어려운 B형은 가산점

기 획 특 집

희망아 솟아라! 2013 대한민국

대한아파트에 사는 워킹맘 희망이 엄마와 전업주부 행복이 엄마는 자매처럼 친한 이웃입니다. 희망이와 행복이는 모두 새해 들어 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희망이 아빠는 문화예술인 복지가 개선되어 힘이 나고, 행복이 엄마는 다시 일하게 될 희망이 커졌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행복이 아빠도, 소상공인인 행복이 삼촌도 늘어난 정부 지원이 큰 힘입니다. 대한아파트 청소 아주머니 오청결 씨에게도 취약계층 지원이 늘어나 힘이 납니다. 모두 모두 꿈과 희망이 커지는 대한민국 2013년입니다.

우리 아이들 잘 키우자! 올해부터 가구당 소득을 따지지 않고 모든 0~5세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등 무상보육이 확대된다.

민생 돌보고 활력 살리는 올해 나라살림

2013년 정부 예산이 새해 첫날 국회에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지출항목별로 증감은 있었지만, 총지출규모에서는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했다.

2013년 새해 예산안이 342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5,000억원 감소한 액수다. 국회는 지난 1월 1일 새벽 273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2명, 반대 41명으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2013년 예산의 총지출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342조5,000억원) 대비 분야별로 ▶4조9,000억원 감액 ▶4조4,000억원의 증액이 이뤄져 총지출규모는 2012년 예산 대비 5.1퍼센트 늘어난 342조원이다. 총수입 역시 정부안(373조 1,000억원)보다 5,000억원이 감소한 372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확정예산은 총지출 감액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액 소요를 반영해 정부안의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했다. 또 관리재정(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을 제외한 재정)수지 역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0.3퍼센트(4조7,000억원 감액)로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의 균형재정 기조를 지켰다.

국가채무는 464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34.3퍼센트 수준이다. 이는 2012년 국가채무 전망치 34.8퍼센트 대비 0.5퍼센트포인트 축소된 것이다.

무상보육과 교육비 부담 완화 대폭 강화

이번 확정예산에는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보육과 교육비 부담 완화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 특히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복지 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증액이 이뤄졌다.

확정예산에 따르면 만 0~2세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지원하는 보육료는 전 계층에 지원한다. 아이를 집에서 키울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 역시 모든 만 0~5세 아동에게 주어진다.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가구당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99곳을 올해 새로 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곳 더 들어선다. 보육교사 수당은 월 12만원으로 늘어난다.

대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규모는 5,250억원 증액됐다. 든든학자금 대출금리는 당초 3.9퍼센트에서 2.9퍼센트로 1퍼센트포인트 낮아진다.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어 총 1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사병 봉급 인상률은 정부안보다 5퍼센트포인트 올린 20퍼센트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상병 봉급은 월 9만7,500원에서 11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쌀 고정직불금은 정부안보다 헥타르당 10만원 늘어난 8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망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3,710억원 늘어난 24조3,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예산 확정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제주 해군기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2,009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국회는 집행을 70일간 보류하고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미항으로 적절한지 타당성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올 상반기 중 재정 60퍼센트 집행

한편 정부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재정의 60퍼센트를 조기집행한다. 정부는 지난 1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3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2013년 예산

구 분	2012년	2013년	전년 대비
총수입	343.5조원	372.6조원	29조원 증액 (+8.5%)
총지출	325.4조원	342조원	16.6조원 증액 (+5.1%)
통합재정수지	18.1조원	30.6조원	12.5조원 증액 (+69%)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14.3조원 (–1.1%)	–4.7조원 (–0.3%)	9.6조원 증액 (+0.8%)
국가채무 (GDP대비)	445.2조원 (34.8%)	464.6조원 (34.3%)	19.4조원 증액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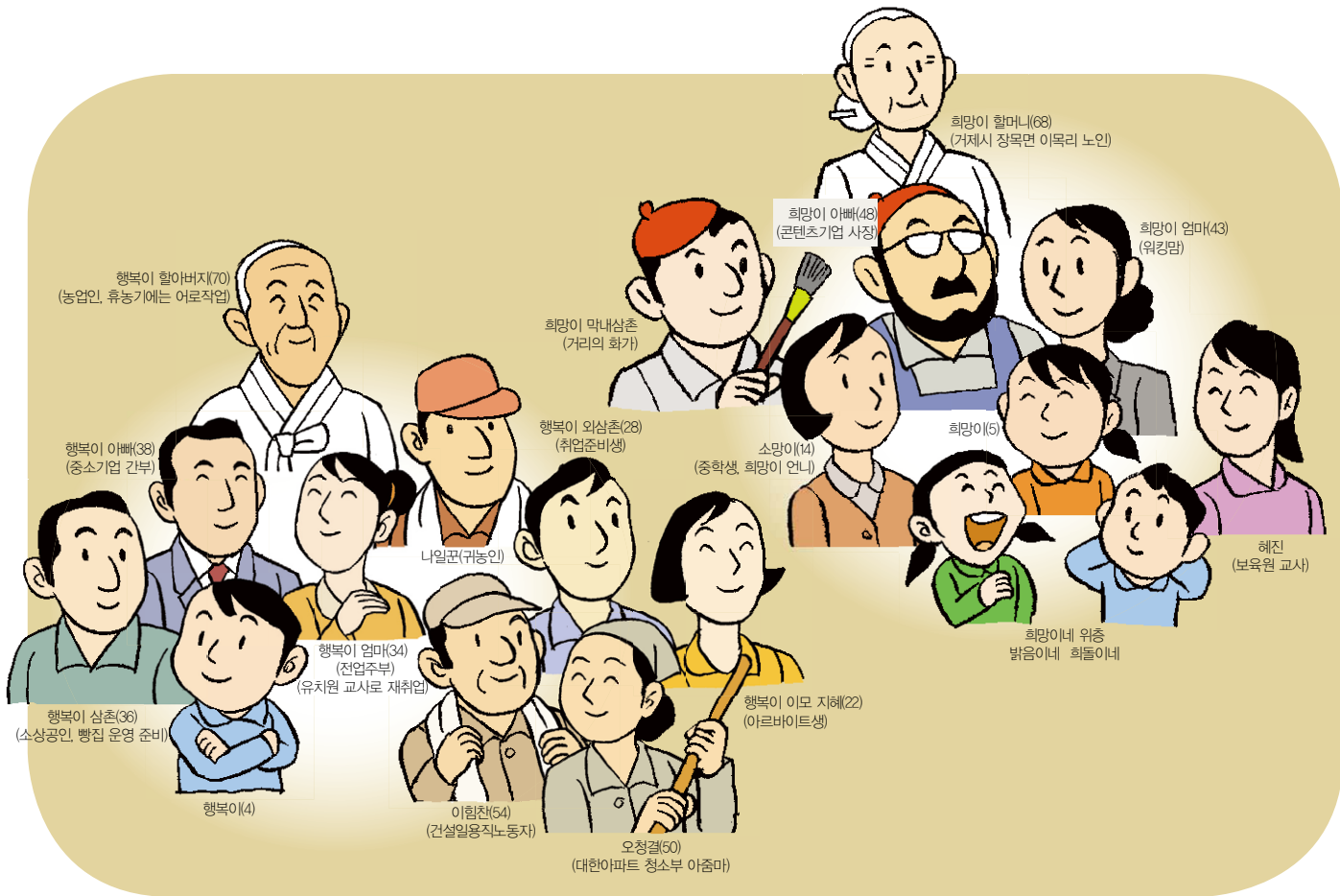
* 관리재정이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한 재정수지
* 국가채무는 2012년 12월 27일 수정된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른 명목GDP를 적용한 수치. 당초 정부안의 명목GDP를 적용할 경우 2012년 34.0%, 2013년 33.2%

박 장관은 "경기 둔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재정의 30퍼센트, 6월 말까지 60퍼센트를 조기집행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지난해처럼 자체 조기집행 특별점검 체계를 가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특히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분야의 예산 99조4,000억원은 상반기 중 전체 집행률 60퍼센트보다 높은 수준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 집행액(예산+기금+공공기관) 289조 5,000억원 가운데 1분기에 86조8,000억원, 상반기까지 총 173조8,000억원이 집행된다. 정부는 조기집행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연초부터 SOC 및 일자리사업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SOC 발주·계약과 일자리사업 대상자 선정을 조속히 끝내고 해당 사업에 자금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실적을 점검하고, 경제상황이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세입 징수 노력도 추진한다.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일선기관의 집행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G

글·박경아 기자

일러스트 · 정형기

양육비 걱정 뚝! 쑥쑥 크는 꿈나무

모든 계층 보육료·양육수당 확대…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늘려

새해 정부는 부모들의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더는 정책을 시행한다. 만 0~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맞벌이 주부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늘린다. 대학생 가정의 학자금 부담을 더는 국가장학금도 크게 확대한다.

어린이 양육 대한아파트 302호에 사는 워킹맘 희망이 엄마. 이웃집 전업주부 301호 행복이 엄마와 주말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만 0~5세 무상보육 이야기로 서로 교환할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희망이는 만 5세, 행복이는 만 4세입니다. 나이는 다르지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희망이 엄마와 행복이 엄마는 2월 1일 누리과정 보육료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일이 바쁜 희망이 엄마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을 하고 행복이 엄마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예정입니다. 소득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지 않아 보육료를 받지 못했던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엄마들은 그저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보육료 지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희망이가 만 5세가 되어 보육료 지원 차례가 오기만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0~5세 무상보육정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엄마들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무상보육입니다. 희망이 엄마와 행복이 엄마도 평소 친한 동네 엄마들과 무상보육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엄마들은 올해부터 지원받게 될 보육료가 얼마인지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양육수당은 8,810억원으로 늘었고, 보육료는 2조5,982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희망이가 받는 보육료는 매달 22만원, 국·공립유치원에 가는 행복이가 받는 보육료는 월 6만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만 3~5세 자녀를 기르는 소득하위 70% 가정은 양육보조금으로 월 10만원씩 받게 됩니다. 특히 만 0~2세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은 보육시설 이용과 관계없이 10만~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요즘 만나는 엄마들마다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제야 아이 키우는 맛이 난다는 겁니다. 그동안 치열한 경쟁률로 인해 아이들이 원하는 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하던 일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해에만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101곳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희망이네 위층에 사는 밝음이·희돌이네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402호 밝음이 엄마는 초등학생 밝음이가 늘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불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밝음이 엄마는 올해부터 가구당 돌봄시간을 대폭 확대한 초등학생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밝음이를 돌봐달라고 매번 신세를 지던 친정어머니에 대한 마음의 부담도 한결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밝음이가 혼자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401호 희돌이 엄마는 올해 예정된 둘째 출산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이 크지만 한편으로 고민도 있었습니다. 첫 아이 희돌이가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둘째마저 미숙아로 태어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입니다.

기쁨 반 걱정 반으로 불러오는 배를 바라보던 희돌이 엄마는 올해 정부의 미숙아의료비 지원이 166억원으로 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 건강관리까지 강화한다고 하니 믿음을 가지고 둘째를 낳아볼 생각입니다.

아빠들은 무심할지 모르지만 엄마들은 압니다. 이런 지원이 얼마나 살림에 도움이 되는지를요. 정부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안도감과 '복지국가'에 산다는 것이 실감 납니다. 아이 키울 만해졌다는 엄마들의 이야기꽃은 그칠 줄 모릅니다.

보육료 전 계층에 매달 22만원 지원, 보육교사 월급도 늘어

대학교육 행복이 이모인 대학생 지혜(22) 씨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득하위 30퍼센트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국가장학금이 올해는 소득하위 80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2조7,750억원으로 늘어 등록금 부담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겁니다.

지혜 씨는 학기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부모님의 등록금 부담을 더는 데 열심입니다. 하지만 2학년 때부터 받기 시작한 학자금 대출은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든든장학금과 일반상환학자금의 대출금리가 2.9퍼센트까지 낮아졌고, 장학재단이 출연하는 대출금리 인하 지원은 469억원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막내로서 부모님과 형제·자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던 지혜 씨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보육교사 희망이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이혜진(27) 씨는 요즘 월급통장을 열어 보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근무환경 개선비 명목으로 월 12만원씩 수령액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근무환경개선비가 나오면서 혜진 씨의 얼굴이 한층 환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보육교사를 평생 업으로 삼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요로운 삶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정부가 교사들을 지원해주는 만큼 아이들을 더욱 사랑으로 보살펴야겠다는 마음이 새록새록 듭니다. G

글 · 김슬기 기자

교육·보육 관련 예산

구분	정책	2012년	2013년
교육	국가장학금 규모 확대	1조7,500억원	**2조7,750억원**
	장학재단 출연 (대출금리 인하 지원)	359억원	**469억원**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3.9%	**2.9%**
아동	미숙아의료비 지원 확대·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136억원 (1만2,000명)	**166억원 (1만,5000명)**
	초등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	429억원 (연 480시간/가구)	**666억원 (연 720시간/가구)**
보육	만 0~2세 전 계층 보육료	2조3,913억원	**2조5,982억원**
	만 0~5세 전 계층 양육 수당	1,026억원	**8,810억원**

밤거리는 든든, 학교생활은 안심!

여중생 소망이, 학교폭력과 밤길걱정 덜다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예산이 50퍼센트 이상 늘었다. 진술조력인·법률조력인 제도 시행으로 법적지원이 확대되고 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도 추가로 세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일러스트 · 정형기

성폭력 근절 올해 중학생이 되는 희망이 언니 소망이(14)는 예쁜 교복을 입고 등교할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새 친구들을 만나 중학교 생활을 할 생각을 하니 스스로 이제 다 컸다는 마음도 듭니다. 소망이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잔인한 성폭력사건을 보면서 범죄가 언제 내게도 발생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변 어른들이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말하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낮에도 빈번하게 벌어지는 성폭력사건 때문에 소망이는 등·하교를 할 때는 언제나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다녔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면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소망이는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영화 〈도가니〉를 보며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일으킨 아저씨들이 너무 싫고 미웠습니다. 예쁜 중학생 교복을 사 놓았음에도 초등학교 때처럼 바지만 입고 다녀야 안전한 것은 아닌지 고민도 됐습니다.

종례시간에 올해 바뀐 정책에 대한 담임선생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2013년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예산이 54.1퍼센트 늘어 4,055억원이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이 늘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만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성인이 도움을 받게 되리라는 큰 정책 변화였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치료와 자립 지원에는 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 중 가장 취약한 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진술조력인을 양성한다고 합니다. 폭력 피해여성 쉼터는 21개로 늘어 총 18억원을 지원한답니다.

소망이는 같은 반 친구인 사랑이(14)에게 정책 예산이 확대된 배경을 물었습니다. 사랑이는 여성 법조인을 꿈꾸는 똑똑한 친구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사랑이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사랑이는 그동안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번복하는 바람에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양성하는 진술조력인은 이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과 장애인을 대신해 중립적 입장에서 피해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와 부모에게만 지원하던 가족의료비도 올해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 전부에게 지원합니다.

사랑이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소망이는 이제 중학교에 다니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주변사람들과 든든한 정부가 있으니까요.

성폭력 근절 4,055억원·학교폭력 근절 2,957억원 투입

학교폭력 근절 3월 첫 중학교 등굣길. 소망이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집을 나선 지 얼마쯤 가다 보니 남학생들이 여러 명 모여 서로 치고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소망이는 학교폭력의 현장이 아닌가 가슴을 졸였지요. 다행히 친구들끼리 반가움을 표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소망이는 가슴을 쓸어 내리며 교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배정된 1학년 3반을 찾는데 복도 위에 매달린 CCTV 카메라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비소집일에 새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CCTV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예산이 2,957억원으로 늘면서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총 4,026개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내 곳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니 안심입니다. 소망이는 중학교에 다니면서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일순간 사라졌습니다.

안전한 환경 만드는 2013년 예산

구분	항목	예산
환경	(주)휴브글로브 불산가스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 방지 및 환경성 질환 예방 ·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원 확대	155억원
	표토침식 및 토양오염원 실태조사 확대를 통한 토양환경 보전 강화	120억원
	노후함정 석면 대체사업	36억원(신규)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피해아동 법률조력인	34억원
	진술조력인 양성	3억원(신규)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78억원
	폭력피해여성 쉼터	18억원(21개소)
	아동 · 여성 성폭력 근절 예산	4,055억원
학교 폭력	CCTV 설치 확대	4,026개
	학교폭력 근절 예산	2,957억원

환경 보전 행복이 엄마는 지난해 (주)휴브글로브 불산 누출 사고 소식을 접하고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고향이 사고가 난 경북 구미시였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옛 고향사람들의 소식에 눈시울부터 붉어졌습니다.

행복이 엄마가 환경뉴스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불산가스 사태를 일으킨 업체가 정부의 관리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국민이 철저히 감시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올해 (주)휴브글로브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같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방지하고 환경성 질환을 예방·사후관리하는 지원비용이 155억원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복이 엄마는 다른 환경정책 예산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노후 함정의 석면 대체사업에 36억원이 신규로 책정됐고, 표토 침식 및 토양오염원 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토양환경보전 예산이 12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행복이네 가족이 사는 땅, 행복이가 평생 호흡하며 살아가야 할 환경이기에 확대된 환경정책예산에 안심이 됩니다. 행복이 엄마는 행복이가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봅니다. G

글 · 김슬기 기자

문화 살리고, 경제 살리고!

제2의 뽀로로가 세계인 매료시킬 날 곧 온다

한국은 문화강국이다. 하지만 여전히 취약한 분야도 많다. 영세 콘텐츠기업 육성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 이유다. 그 일환으로 중소 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 예술인복지재단 설립준비금도 크게 늘었다. 문화·예술·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에게 2013년은 힘이 솟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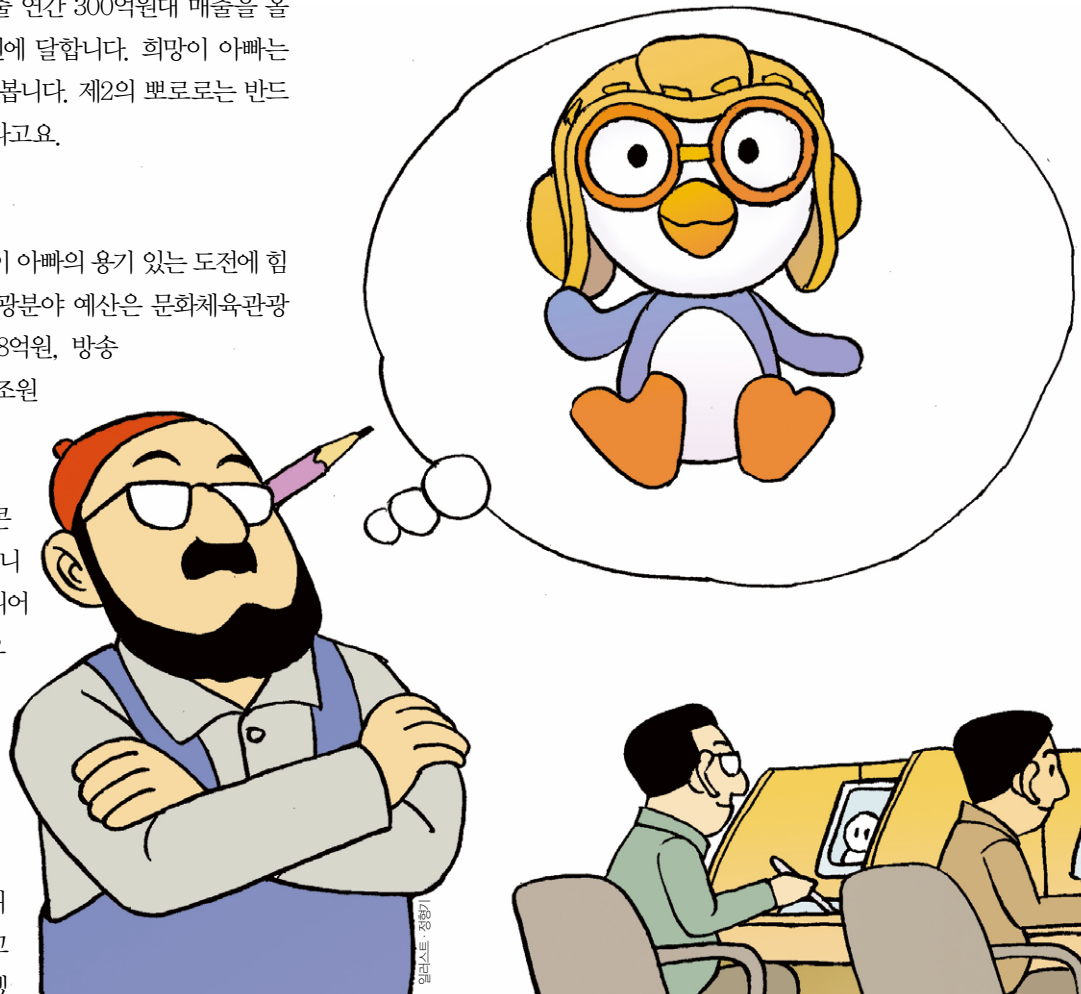
희망이 아빠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개발하는 자그마한 콘텐츠기업 사장입니다. 희망이 아빠는 '뽀로로' 같은 우리나라 순수 토종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위해 늘 골몰합니다. '뽀통령' '뽀느님'으로 불리며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뽀로로도 2003년 자본금 5억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뽀로로는 현재 120여 국에 수출 연간 300억원대 매출을 올리며 브랜드 가치만 4,000억여 원에 달합니다. 희망이 아빠는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봅니다. 제2의 뽀로로는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요.

중소 콘텐츠기업 안정적 성장 지원

정부도 올해 새 정책을 통해 희망이 아빠의 용기 있는 도전에 힘을 보탭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4조1,700억원, 문화재청 5,848억원, 방송통신위원회 2,452억원 등 모두 5조원입니다. 2012년의 4조5,757억원에 비해 9.9퍼센트 늘었습니다.

문광부 등은 늘어난 예산을 콘텐츠산업 육성에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방침입니다. 우선 영화·애니메이션·게임·드라마·뮤지컬 등의 분야 중소 콘텐츠기업에 경영·제작·기술 등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영세 콘텐츠기업이 내실을 다지고 규모 면에서도 성장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까지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들이 주축이 되는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에도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콘텐츠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영세 중소 콘텐츠기업들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이 아빠는 사실 자금사정으로 골머리를 앓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은행을 찾아가 몇 번이나 머리를 숙이며 부탁을 해 보기도 하고, 그래도 부족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적도 있습니다. 희망이 아빠뿐 아니라 중소 콘텐츠기업을 운영하는 이들 대부분은 자금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전국 중소 콘텐츠기업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 중소 콘테츠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0.8퍼센트가 기업 경영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자금 및 제작비 조달'을 꼽았습니다. 응답항목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이 '판로확보'(19.9퍼센트)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콘텐츠기업 특성상 공장·설비 등 기초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 담보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은행대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자금조달의 어려움은 더 큽니다. 직원 30명 이상 규모 업체는 30.0퍼센트만이 '자금조달 상황이 나쁘다'고 한 반면 직원 1명에서 5명 미만 규모 업체는 전체의 65.0퍼센트가 '자금조달 상황이 나쁘다'고 답했습니다.

배 곯는 예술인 없도록 창작 안전망 구축

3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는 희망이 아빠도 직원들의 사기 때문에 내색은 하지 않고 있지만, 매달 월급날만 되면 인건비가 밀리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자칫 월급이 밀리면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아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늘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2금융권 뿐 아니라 사채업자까지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으로 자금조달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아 누구보다 기쁩니다.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으로 중소 콘텐츠기업들이 자금문제에서 다소나마 벗어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나아가 콘텐츠분야에 관심 있는 이들이 창업을 하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 기업들이 다방면에서 활약을 펼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지원 등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희망이 아빠는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으로 영세 중소 콘텐츠기업들이 상호 협조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

구분	2012년 (A)	2013년 (B)	증감 (B–A)
· 문화체육관광부	3조7,200억원	4조1,700억원	4,500억원
· 문화재청	5,570억원	5,848억원	278억원
· 방통위	2,930억원	2,452억원	−478억원
· 문화체육관광분야	4조5,700억원	5조	4,300억원

희망이 아빠에게는 남동생이 여럿 있습니다. 이들 중 희망이의 막내삼촌은 애니메이션 디자이너로 일하다 '다른 일을 해보겠다'며 오래 전 퇴사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희망이 막내삼촌은 원래 그림에 타고난 소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밖으로 나온 희망이 막내삼촌에게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막내삼촌은 현재 길거리 화가로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미술치료사로 직업을 전환하려고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직업을 바꾸는 것은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 고민하던 희망이 삼촌에게 올해 들어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최근 정부가 화가·작가 등 예술인 지원을 위한 '창작안전망사업'을 운영할 예술인복지재단 설립에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삼촌은 현재 사는 곳에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미술교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재능나눔활동을 하면 창작준비금으로 3개월간 월 100만원씩 제공한다고 합니다. 희망이 삼촌 입장에서는 마른 논을 적셔주는 고마운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미술치료사로 직업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교육비 면제와 함께 참여수당(월 2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월 18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됩니다. 희망이 삼촌은 물론 여기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우선 2급을 딴 후 1급 시험도 볼 생각입니다. 길거리 화가인 희망이 막내삼촌은 언젠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글·박기태 기자

일러스트 · 정형기

희망 키우는 일자리, 재취업 쉬워진다

다시 보육교사 된 행복이 엄마, 해외취업에 자신감 되찾은 행복이 외삼촌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청년과 장년,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늘어난다.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장애인활동지원 일자리가 각각 5,000개씩 생긴다.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도 신설된다.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 취업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일자리 확대 방향이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행복이는 요즘 불만이 생겼습니다. 자기만 바라보다시피 하던 엄마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관심을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던 엄마가 요즘에는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행복이와 함께 지냅니다. 행복이가 "엄마, 나 이제 유치원에 혼자 있을 수 있어. 집에 안 가?"하고 물으면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유치원에 오면 이제 엄마가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알았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이 엄마는 행복이를 낳기 전 다른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유아교사였습니다. 결혼한 뒤 행복이를 키우느라 잠시 일을 쉬었습니다. 행복이 엄마가 다시 직장에 다닐 결심을 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박헌신 누나가 권해서입니다. 누나는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에 일자리가 많이 나와요. 행복이 어머니, 다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소규모 보육시설 고용연금보험료 반값 먼저 연락을 한 사람은 행복이가 다니는 유치원 원장님이었습니다. 원장님은 그동안 보육교사를 더 채용하고 싶었지만 고용연금보험료가 부담이 됐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10명 미만의 작은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장님은 곧바로 평소 눈여겨봐뒀던 행복이 엄마에게 같이 일하자고 권했습니다.

헌신이 누나는 요즘 행복이 엄마 같은 사람을 찾아 다니느라 바쁩니다. 올해 사회서비스나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1만 2,000개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모여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만 5,000개, 장애인활동을 지원하는 일자리도 5,000개, 아이돌봄지원 일자리도 2,000개나 늘었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지원방식 다양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자 행복이 엄마는 취업준비를 한다며 집안에만 머무르던 행복이 외삼촌을 불렀습니다. 우산을 가져와 행복이를 데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이 외삼촌은 "나도 바쁜데"라고 투덜거리며 유치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행복이와 함께 아파트 어귀에 들어선 외삼촌은 옆동에 사는 이힘찬(54) 아저씨를 만나 큰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행복이 외삼촌에게 종종 인생상담을 해주시는 아저씨였습니다. 일이 없을 때가 많은 이힘찬 아저씨는 평소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행복이 외삼촌이 "날씨가 이런 날 일도 없을 텐데 어디 가세요?"라고 묻자 아저씨는 "나 요즘 일 배우러 다녀. 건설일용직도 새로운 일을 배워야 살아남는데 정부가 요즘 훈련과정을 만들어줬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행복이 외삼촌이 "무엇을 배울 때는 지난 것 아녜요?" 하고 무시하는 듯하자 이힘찬 아저씨는 "옛말 틀린 말 없어. 모름지기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해. 더구나 교육받으면 매달 32만원씩 주던데" 하며 씩 웃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 번쯤은 세계를 상대해 봐야

행복이 외삼촌은 "그래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하는 거죠? 직장도 없이 취직준비나 하고 있으니…"라며 어깨를 떨궜습니다. 이힘찬 아저씨는 "옛날에는 나도 중동의 사막을 누비던 건설노동자였어"라며 "젊을 때 한 번은 세계를 상대해봐야 사내지"라며 껄껄 웃었습니다.

이힘찬 아저씨를 만난 행복이 외삼촌은 더 우울합니다. 전에는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세상이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며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평불만으로 의기투합할 아저씨를 잃어버려서죠. 아저씨는 이제 편의점 앞에서 소주를 마시지도 않고 늘 집에만 틀어박혀 계시지도 않습니다.

외삼촌은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취직을 한 친구도 있고 창업을 한 친구도 있습니다. 외삼촌 말고도 취업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제법 있답니다. 창업을 했던 한 친구는 이제 다른 일을 만들어 보려 한답니다. "전에는 IT쪽 벤처만 했었는데 이제는 서비스 분야를 해볼까 해." 외삼촌이 물어봅니다. "서비스 분야 벤처? 그게 먹는 거야?" 친구는 "먹는 거 밖에 모르냐? 그건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팔지 않는 사업체. 그러니까 서비스로 창업하는 거야. 올해부터 정부가 서비스분야 창업을 지원해 준단다. 난 벤처기업 컨설팅 같은 걸 해보려고 해.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든든하겠어"라고 말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했던 친구가 끼어듭니다. "자고로 나라경제가 잘되려면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학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지난해에 일반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이 50억원밖에 안됐어. 밥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연구를 할 수 있겠냐?" 창업한 친구가 다독입니다. "걱정마. 일반연구자를 위한 지원액에 올해 225억원으로 늘어난 거 몰랐구나? 허허." 외삼촌이 손가락으로 셈을 합니다. "그럼 몇 배냐. 4배가 넘잖아. 배워서 남 주는 게 아니었네. 좋겠다."

행복이 외삼촌은 가까이 지내는 박헌신 누나를 만나 이힘찬 아저씨와 나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헌신 누나는 "자기도 참, 올해 청년이 해외에 취업하면 성공수당으로 최대 300만원이나 주는 거 몰라? 그거 한번 찾아봐"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이 외삼촌이 "해외에 나갔다 취업이 안되면 어쩌지?" 하고 불안해하자 박헌신 누나는 "걱정마. 실패하면 내가 봉급 털어 자기 실패수당 줄게. 대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열심히 찾아봐" 하며 눈을 찡긋거렸습니다.

글 · 박상주 기자

일자리 관련 예산

구분	정책	예산액
• 사회서비스 및 취약계층 일자리	재정지원 일자리 총 60만1,000명 직접일자리 1만2,000개 추가 창출 – 지역공동체 일자리 (5,000명 확대) – 장애인활동 지원 (5,000명 확대) – 아이돌봄 지원 (2,000명 확대)	
• 청·장년 일자리	건설일용근로자 맞춤형 훈련과정 신설	총 39억원 (4,200명 대상 월 32만원 지원)
	청년 해외취업성공수당 신설	총 36억원 (2,000명 대상 최대 300만원 지급)
• 사회보험료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2013년 4월부터)	총 5,385억원 (월 보수 35만~130만원 근로자 대상 보험료 2분의 1 지원)
• 과학기술 일자리	일반연구자 지원 (리서치펠로)	2012년 50억원 → 2013년 225억원
• 서비스 일자리	서비스 분야 창업 지원	625억원 지원 확대

한국형 '히든 챔피언' 키운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늘리고 소상공인 창업지원 강화

2013년 중소기업청의 확정예산은 6조5,632억원이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돕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설한 소상공인계정 1조1,500억원도 올해 예산에서 주목할 항목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행복이 아빠와 빵집 창업을 준비중인 행복이 삼촌의 사례를 통해 정부 예산이 소시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소개한다.

중소기업 행복이 아빠는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작지만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자동차부품회사입니다.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데, 얼마 전부터는 높은 품질을 평가받아 유럽 바이어들의 공장 방문도 잦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님은 고졸 기능공 출신입니다. 흔히 말하는 '가방 끈은 짧지만' 회사를 경영하면서 신기술 개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행복이 아빠는 사장님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팔기 위해 밤낮으로 같이 뛰었습니다. 작은 기업이다 보니 여러 분야의 일을 겸해야 합니다. 새해 들어 행복이 아빠는 할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 지원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2013년 중소기업청 예산은 지난해보다 4,085억원 늘었습니다. 여기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는 2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5,000억원까지 더하면 모두 9,085억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2차보전방식은 시중은행이 자금을 조달해 낮은 금리로 기업을 지원하면 나중에 정부가 예산으로 은행의 손실분을 보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새해 들어 행복이 아빠는 중소기업청을 찾아가 회사의 차세대 핵심기술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술 개발은 회사의 명운이 달린 큰일입니다. 새로운 투자 없이 단순 부품만 제조해도 회사는 굴러갑니다. 게다가 자칫 실패하면 사업을 접게 될 수도 있기에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을 망설이고는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꿈이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첨단제품을 만들겠다는 야심입니다. 자동차산업 선진국인 독일 회사에 못지 않은 품질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장님은 차세대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핵심부품 개발에 남보다 한 발 앞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고민하는 연구개발(R&D) 초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마침 이를 위한 지원예산도 7,474억원에서 8,183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덕분에 중소기업청이 창업기업의 안정과 R&D를 도울 수 있는 정책의 폭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행복이 아빠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기술력이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연구개발인력 인건비 50% 지원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중급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의 절반을 보조하는 내용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이 아빠는 회사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중소기업청 담당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자료를 준비합니다. 밤잠을 못 자는 날도 있지만 행복이 아빠는 요즘 새삼 의욕이 넘칩니다.

신부품 개발에 성공하면 벌써부터 이를 사용하고 싶다는 유럽 자동차 메이커가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생기면 구조조정 걱정 없이 회사에 다닐 수 있겠죠. 행복이 대학 학비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힘이 솟아납니다.

새해에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새로 나왔습니다. R&D 지원과 관련해 틈틈이 중소기업청을 방문하던 행복이 아빠는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곧장 사장님께 보고한 후 건강관리 시스템을 신청했습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은 종합병원의 건강검진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업의 상태를 전문가가 점검한 다음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처방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

구분	2012년(A)	2013년(B)	증감(B–A)
• 일반예산	1조8,015억원	1조9,285억원	1,270억원 (7.1%)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조3,532억원	4조6,347억원	2,815억원 (6.5%)
–중소기업진흥계정	–	3조4,880억원	–8,652억원(–19.9%)
–소상공인진흥계정	–	1조1,467억원	1조1,467억원(순증)
합계	6조1,547억원	6조5,632억원	4,085억원 (6.6%)

주로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쟁력 등을 점검해줍니다. 행복이 아빠가 다니는 기업처럼 평소 전문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컨설팅 서비스인 셈입니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통해 4,000여 기업이 처방을 받았는데, 중소기업청은 올해 대상 기업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랍니다.

소상공인 행복이네 바로 옆집에 사는 행복이 삼촌도 올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이 삼촌은 아내와 함께 작은 빵집을 운영하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한 다음 창업학교에 다니며 착실히 창업 준비를 해왔습니다.

행복이 삼촌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제도를 통해 창업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자금으로 올해 규모는 7,50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2분기마다 3.55퍼센트의 낮은 이자가 붙는 대출이어서 자금이 빡빡한 창업 초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복이 삼촌은 창업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많이 활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정책도 그 중 하나입니다. 골목슈퍼·빵집·한복·봉제·액세서리 등의 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협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공동 브랜드 개발과 공동구매, 공동 마케팅과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모두 307억원의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복이 삼촌이 동네 빵집주인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에 가입한 이유입니다.

요즘 행복이 아빠와 행복이 삼촌은 자주 중소기업청을 함께 방문합니다. 각자 분야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를 나누며 등을 토닥거려줍니다. 2013년을 성실히 준비하는 행복이네 가족에 진짜 행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G

글·조용탁 기자

농어업 경쟁력 높일 여건 형성에 주력

안정적 농가소득 기대하는 행복이 할아버지, 인상된 보훈수당에도 '으쓱'

FTA 이후 경쟁력이 약화한 한국 농어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예산이 책정됐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가 오르고 밭농업직불제 품목을 확대한다. 귀농·귀촌 지원을 늘리고 농어촌 실정에 적합한 소규모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초점은 농어업인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졌다.

행복이 할아버지(70)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요즘은 경쟁력이 높은 특용작물 위주로 재배하십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경쟁력을 고려해 생산작물 비중을 조금씩 조정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작물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지난 여름 행복이네는 가뭄과 홍수가 닥칠 때마다 텔레비전을 보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태풍·호우 등 기상특보라도 내려지면 행복이는 걱정이 앞서 그때마다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곤 했습니다.

일러스트 · 정형기

안정적 농가수입 확대 행복이 엄마는 행복이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 홍수 때 아버님 경운기가 논두렁에 빠져 못쓰게 됐대요. 배농사도 폭풍에 낙과가 많아 못 팔게 됐고요. 아버님 농사가 걱정이에요. 경운기부터 사드려야겠어요." 행복이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찾더니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비상금이지만 내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써야지" 하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행복이 할아버지는 "애비냐? 우리는 괜찮다. 전에는 배가 재해보험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된다더라. 너무 걱정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행복이 스마트폰 없지? 택배로 하나 보냈으니 이제 LTE로 손주 재롱이나 봐야겠다"며 껄껄 웃으십니다. 행복이 아버지는 "올해 농사가 흉작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라며 만류했지만 할아버지는 "괜찮아. 올해는 쌀 고정직불금과 밭농업직불제 품목이 늘었어. 큰 수입은 기대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입은 들어올거야" 하고 대답하십니다.

행복이 할머니(68)가 통화 중에 끼어드십니다. "애구 영감, 안정적이라뇨. 쌀만 키우나요? 감자와 고구마 같은 건 어쩌고요? 팔릴지 안팔릴지도 모른다구요." 할머니 말씀을 들은 할아버지는 그저 씩 웃으십니다. "할멈은 신문도 안 보시나? 올해부터는 감자·고구마·들깨·양파·대파·쪽파·유채까지 7개 품목이 밭농업직불제 품목에 추가돼, 팔릴 걱정일랑 할 필요 없으시네. 허허…."

귀농인구 지원 확대 요즘 행복이 할아버지는 옆집으로 이사온 나일꾼(40) 아저씨와 자주 얼굴을 보십니다. 아저씨는 최근 귀농해 할아버지께 농사를 배우지요. 할아버지는 아저씨를 '양자'라고 부르며 이것저것 살뜰하게 챙겨주십니다.

행복이 할아버지는 나일꾼 아저씨가 귀농에 실패하고 도시로 돌아갈까 늘 전전긍긍하십니다. 수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사람도 힘든 게 농사일인데 이제 막 농사를 시작하는 젊은 사람이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겁니다. FTA가 체결될 때마다 그런 걱정을 더하십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사 환경이 더 나빠져서 젊은 농민들 힘이 빠질까봐 그러십니다.

그럴 때마다 나일꾼 아저씨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습니까? 쉬운 일이면 시작도 안했을 겁니다"라며 말씀드립니다. 나일꾼 아저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를 찾아가볼 생각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나일꾼 아저씨처럼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을 위한 각종 지원책과 정보가 쌓여있답니다.

나일꾼 아저씨는 오래 전부터 귀농을 꿈꿔온 도회지 출신입니다. 하지만 농촌에 어린아이들을 맡겨둘 보육시설이 없어 늘 그 꿈을 미뤘지요. 올해 정부가 농어촌에 소규모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소식에 나일꾼 아저씨는 큰 근심 한 가지를 덜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 농촌에서도 지금보다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이 발표됐습니다. 농촌에서 꿈을 이루면서도 도시생활 부럽지 않게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일꾼 아저씨는 귀농을 결심하셨답니다.

농어업인 관련 예산

-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80만원/헥타르, 총 6,984억원 예산
- 밭농업직불제 품목확대 : 19품목 → 26품목, 총 726억원 예산
- 농어업재해보험 지원규모 확대
  2012년 1,567억원 → 2013년 2,090억원
- 종합위험 보장방식 농어업재해보험 품목 : 배 포함
-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신설 : 152억원 예산
- 농어촌 실정에 적합한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36곳 신설, 2012년 275억원 → 2013년 327억원
- 축산농가 사료 직거래자금 증액 : 1,700억원 예산

군인 · 참전유공자 관련 예산

- 사병 봉급 인상 : 15 → 20퍼센트, 총 6,184억원 예산
  상병 기준 월급 : 2012년 9만7,500원 → 2013년 11만7,000원
- 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 : 월 1만원 추가 인상, 5,298억원 예산
  무공수당 : 2012년 18만~20만원 2013년 21만~23만원
  참전수당 : 2012년 12만원 → 2013년 15만원/월

나일꾼 아저씨는 요즘 축사를 새로 짓습니다. 할아버지는 "구제역이라도 닥치면 어쩌려고? 요즘 사료값도 올랐다던데…" 하며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십니다. 나일꾼 아저씨는 "이제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일어나도록 정부가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사료값은 이제 더 이상 돈 빌려 댈 필요가 없어요. 정부가 사료값을 저금리로 빌려주거든요"라며 축산에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군인 봉급·수당 인상 행복이 할아버지는 월남전 참전용사로 무공훈장을 받은 멋진 분이지요. 휴농기에 어촌으로 가서 배를 몰고 나가실 때마다 할아버지는 "옛날 메콩강을 따라 배를 타고 진격하던 생각이 나는군"이라며 짙은 눈썹을 쓰다듬으시죠. 행복이 할아버지는 올해 정부로부터 무공영예수당으로 매달 23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참전수당으로 월 15만원을 더 받으십니다.

월 38만원으로 각종 수당이 오르는 것은 할아버지의 또 다른 훈장입니다. 나라가 자신의 활동을 인정해줬다는 것이 언제나 자랑스럽기 때문이죠. 해병대를 나온 나일꾼 아저씨는 행복이 할아버지를 찾아갈 때면 언제나 정식으로 거수경례를 하세요. 뿌듯해진 행복이 할아버지는 수당으로 받은 돈을 매년 조금씩 농어업인기금에 기부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이제는 나라를 지키는 일이 우리 농어업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G

글 · 박상주 기자

촘촘해진 복지! 보듬고 다듬어주고…

강력한 복지 드라이브…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

정부의 '복지 드라이브'가 강력하다. 복지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도서지역까지 정부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또 올 7월부터 시작되는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에 관한 시범사업으로 간병비 부담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렌트푸어와 서민층의 주거문제도 해결 순서를 밟고 있다.

일러스트·정형기

이힘찬 씨 어머니(70)는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고향인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작은 섬 이목도에서 홀로 지내십니다. 서울에 사는 이힘찬 씨는 홀로 계신 어머니가 늘 걱정입니다. 하지만 함께 살자는 권유에도 어머니는 "그래도 공기 좋고 말동무들이 있는 고향이 좋다"며 한사코 거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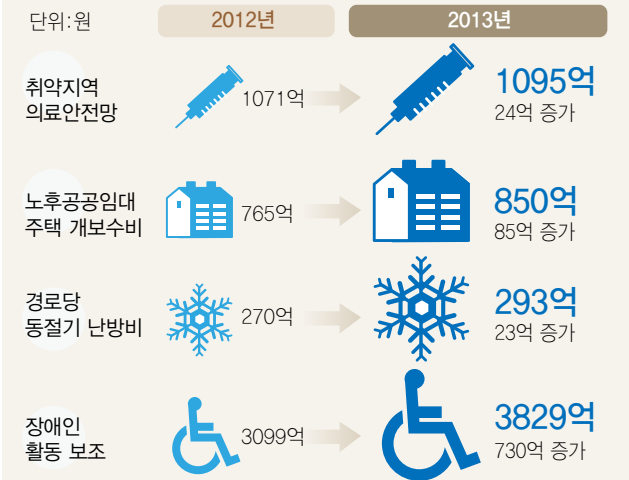
이힘찬 씨네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기초수급자 가정이라는 점도 할머니의 거절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힘찬 씨는 건설일용 노동자로, 힘찬 씨의 부인인 오청결 여사는 행복이네가 사는 대한아파트의 청소업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마저 요즘 건설경기 불황으로 이힘찬 씨는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아 수입이 영 신통찮아 걱정입니다. 이힘찬 씨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부 지원을 받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기술을 배우러 다닙니다.

새해를 맞아 이런 이힘찬 씨네도 한줄기 서광이 비쳤습니다. 정부의 꼼꼼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최저생계비가 늘어난 덕분입니다. 우선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건강 걱정은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목도를 매달 한 번씩 찾아오는 병원선이 고장으로 오지 않을 일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 보강을 위해 2012년(1,071억원)보다 24억원 늘린 1,09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 도서지역 병원선 수리비로 8억원을 신규 책정했습니다.

취약지역 의료안전망에 1,095억원 투입

또 지방 의료원 장비 보강과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나아가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의 연구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100억원입니다. 정부는 1월 말까지 간병서비스에 관한 모델을 결정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환자와 환자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족한 간병인력을 효율적으로 보충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연로한 어머니를 위한 간병인을 어떻게 구할지 늘 걱정이던 이힘찬 씨는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됐다며 밝은 표정입니다.

정부는 노인·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먼저 2012년 270억원이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 예산을 293억원으로 23억원 늘렸습니다. 덕분에 이힘찬 씨 어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경로당에서 동네 친구분들과 만나 다과를 즐기며 황혼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최중증장애인 급여시간도 6~12시간으로 확대해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을 강화하고, 예산도 2012년 3,099억원에서 3,829억원으로 730억원 늘렸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16곳 늘려 총 56곳을 건립합니다. 이로써 더욱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자립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새해에는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이 늘고 서민 주거복지도 크게 나아질 전망입니다. 치솟는 전세가로 집 없는 설움을 절절이 느껴야 했던 이힘찬 씨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렌트푸어 지원책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1조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규모도 13조2,00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노후공공임대주택 개보수 지원규모도 2012년 765억원에서 85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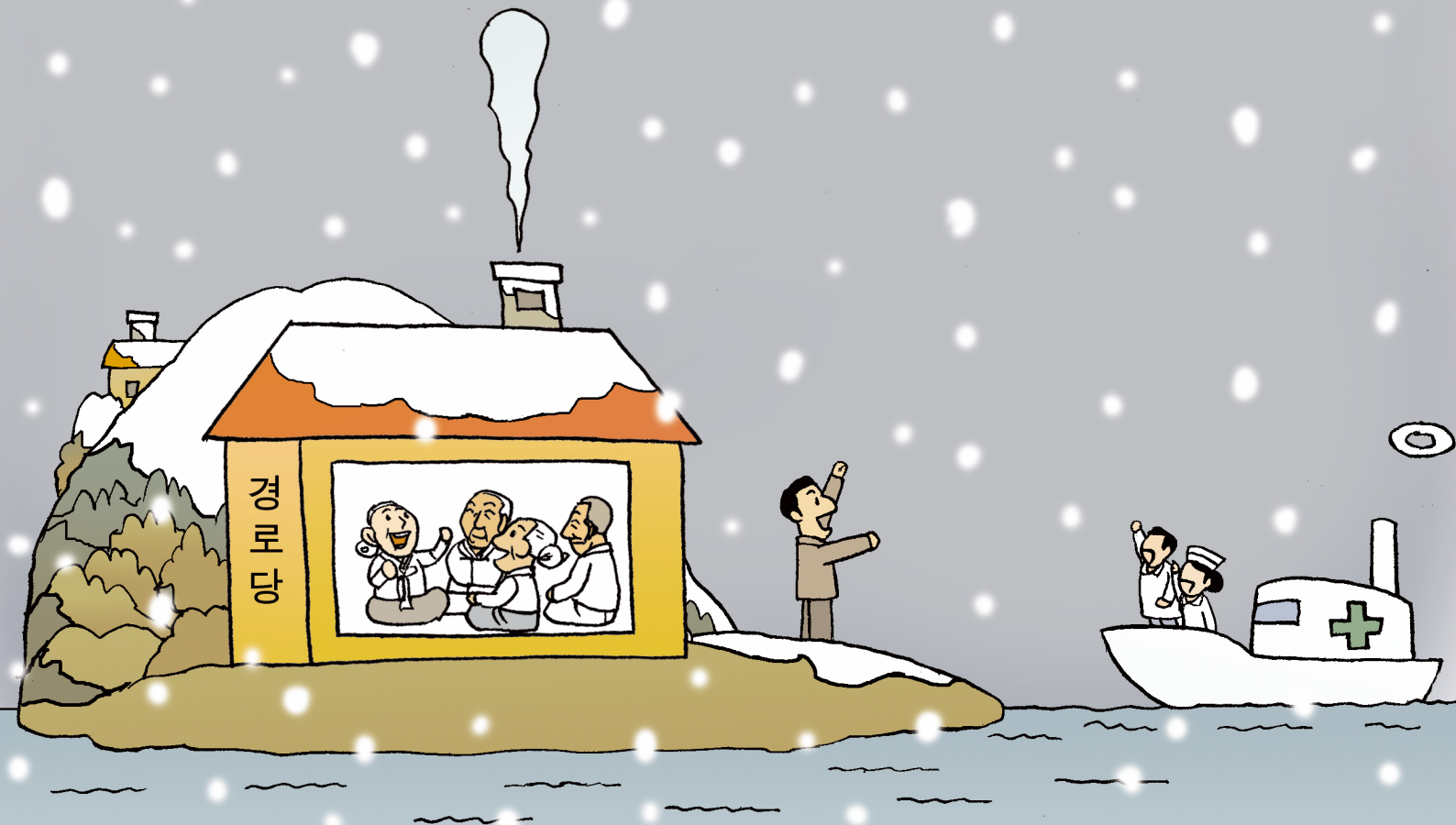
이힘찬 씨와 같은 서민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전세 값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성화도 줄고, 전세 값이 싼 집을 찾아 집을 옮겨 다니는 난민생활도 피할 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최저생계비가 인상된 것도 이힘찬 씨를 기쁘게 합니다. 정부는 2013년 최저생계비를 2012년 대비 3.4퍼센트 인상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를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늘렸습니다. 월별 현금급여 최고액도 122만4,457원에서 126만6,089원으로 인상했습니다. 2013년은 이힘찬 씨네 가족에게도 더욱 따뜻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글·박기태 기자

취약계층 의료·주택예산

단위: 원

구분	2012년	2013년	증가
취약지역 의료안전망	1071억	1095억	24억 증가
노후공공임대 주택 개보수비	765억	850억	85억 증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270억	293억	23억 증가
장애인 활동 보조	3099억	3829억	730억 증가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균형을 잡다

2013년 정부예산이 정해졌다. 치열한 협상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이번 예산은 복지에 큰 힘이 실렸다. 성장의 과실을 취약 계층과 함께 나누기 위한 변화가 담긴 예산이다. 긍정적 변화다. 예산을 연구하는 시각으로 봐도 2013년 예산은 균형이 잘 잡혔다.

정부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고민이 있다.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이다. 자금을 더 많이 풀 것인지, 꽁꽁 묶어둘 것인지 하는 선택의 문제다. 이 상충하는 두 개념을 논하지 않고는 예산을 말할 수 없다. 좋은 예산이란 이 둘 사이의 균형 조절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예산의 대표적 경기부양책으로는 금융주택기금이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지원, 여기에 건설자금까지 담당하는 대형 자금이다. 지난해에 비해 규모도 늘었고 운영 방식도 다양해졌다. 정부가 경기부양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방증이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주목할 점은 2차보전방식이 늘어난 점이다. 시중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일반시민이나 기업에 대출할 때 정부가 정한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후 일반금리를 적용했을 때와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방식이다. 경기를 부양하면서도 경기과열을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이 있는 정책이다.

재정건정성을 위한 노력도 눈여겨봐야 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국가재정의 큰 틀을 잡는 국가재정운영기획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을 30% 이내로 내려야 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는 장기적 안목으로 봐야 한다. 당장은 경기부양에 나섰다. 하지만 앞으로 5년간 정부는 불필요한 투자와 지출을 줄여 재무건정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지금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34퍼센트로 미국(102.1)·영국(81.8)·독일(80.6)에 비해 훨씬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통계자료에는 항상 숨어 있는 숫자들이 있다. 지금 우리 정부의 국가채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기업 부채다. LH공사·수자원공사·한국전력·코레일 등 대형 공기업들이 하나같이 적자에 허덕인다. 공공기관의 부채도 이자를 상환하는 수익이 있어야 해결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공기업들은 아직 수익구조가 개선될 기미를 찾기 어렵다.

단순히 공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문제다. 공기업의 수익구조를 바꾸면 물가·서민생활·산업·수출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이 온다.

그래서 정부가 국가채무 수준을 30퍼센트로 잡은 사실을 긍정적으로 본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다음 정권의 일이다. 예산은 해마다 늘어난다. 씀씀이를 줄이는 일은 쉽지 않다. 정부에 각고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시중에 자금을 더 많이 풀 것인지, 꽁꽁 묶어둘 것인지 정해야 한다. 이 상충하는 두 개념을 논하지 않고는 예산을 말할 수 없다. 좋은 예산이란 이 둘 사이의 균형 조절에 성공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예산에 대해 꼭 할 말이 있다. 이번 복지예산 안에는 더 나은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이 모두 선하지는 않다. 복지 지출 확대가 궁극적인 국민 행복에 도움이 될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예산은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

또 하나 복지예산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부자증세를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부자증세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의 총액은 그리 크지 않다.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80%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

글·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구슬땀 훈련, 결과보다 값지다!

대표선수단 2차 합숙훈련 한창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에서는 개인과 국가의 명예를 위한 메달 획득도 중요하다. 장애인들이 대표선수로 참가하는 대회이기에 이를 목표로 한 대회 준비과정은 더욱 값지다. 스노보드·알파인스키 등 스페셜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2차 합숙훈련중인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를 찾았다. 선수들은 눈 속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눈 덮인 설원에 드문드문 침엽수림이 솟은 스키 점핑타워 상공에 지적장애인 국가대표선수들의 거친 숨소리가 가득하다. 이들을 독려하는 코치의 우렁찬 목소리가 메아리 친다.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스노슈잉(Snowshoeing) 국가대표 남녀 선수 21명이 훈련하던 지난 1월 8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스키 점프대 주변 모습이다. 남녀 대표선수는 각각 11명. 몸 상태가 안 좋은 1명은 옆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스키 점프 국가대표선수들을 소재로 2009년 개봉한 영화 〈국가대표〉를 바로 이곳에서 촬영했다. 영화에서 동계올림픽 스키 점프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 형 대신 지적장애인인 동생이 마지막 역전주자로 나선다. 하지만 동생은 착지 실수로 부상을 입고 금메달 획득에 실패한다. 온갖 역경을 딛고 동계올림픽 최종 본선에 진출하기까지의 감동적 이야기를 영상에 담은 것이 그 영화다.

훈련장에 피어나는 교감과 우정

그러나 동계스페셜올림픽에는 스키 점프 종목이 없다. 만 8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선수만 출전하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소가 있는 종목은 제외하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인 스노슈잉 국가대표는 아슬아슬한 높이의 점프대가 아닌 안전한 착지장 눈밭을 달렸다. 하지만 바닥이 넓은 스노슈(Snowshoe·설피)를 신고 눈밭을 달리기는 일반인도 어렵다.

"걷지 말고 달려야지. 조금만 더. 그래, 잘 한다. 달려. 달려."

독려하는 코치들의 목소리에 숨이 턱까지 차오른 선수들은 헉헉거리면서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지점에서 김덕영(48·은평대영학교) 감독이 힘내라는 의미로 연신 손짓을 했다. 훈련구간을 완주한 선수들은 강 코치와 손을 부딪치고는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손 부딪치기는 일종의 동기부여다.

"앉아서 쉬면 안 돼. 엉덩이 젖는다. 일어서, 얼른."

김 감독의 엄포에 잠시 눈밭에 앉아 쉬던 남녀 선수들이 천천히 눈을 털며 일어섰다. 알펜시아에서 훈련중인 스노보드·알파인스키·크로스컨트리·스노슈잉 대표선수들은 지난 1월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매일 오전 9시30분~12시, 점심식사 후 다시 오후 2시30분~5시 훈련하는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스키 점프장 인근 바이애슬론 경기장에서는 크로스컨트리 선수단 24명(남 17, 여7)이 팀원들끼리 경기를 벌였다. 선수들은 서로 속도경쟁을 했지만, 감독은 속도보다 자세와 규정 준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발을 앞쪽으로 나란히 하라"는 코치의 성화에 팔(八)자로 벌어졌던 스키가 다시 11자를 그렸다.

달려 봐, 넌 할 수 있어!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에 참가하는 스노슈잉 선수와 코치가 1월 8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에서 마치 2인3각 경기를 하듯 함께 훈련을 하고 있다.

찬바람에 볼이 빨갛게 달아오른 라영찬(남·부산 덕포초등 6학년)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꼭 1등을 할 거예요. 저는 잘 타거든요. 아까도 중학생 형을 이겼어요!"라며 활기찬 얼굴로 말했다.

바로 옆 크로스컨트리 코스에서는 지적장애인 선수들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왕복하며 훈련중이었다. 크로스컨트리 종목의 김미나(43·여) 감독은 한 선수를 거의 껴안다시피 하며 개인지도를 했다. 규정 지키기에 지친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합에 져 우는 어린 선수들을 어르고 달래가며 진행된 훈련은 오후 5시 가까이 되어서야 끝났다. 훈련을 마치고 따뜻한 실내로 들어와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은 최다혜(19·여·서울 잠신고) 선수는 "오늘 많이 추웠어요. 콧물도 났지만 (훈련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다리가 풀렸어요"라며 싱긋 웃었다.

스페셜올림픽 선수들은 하계대회와 동계대회에 모두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알파인스키에 출전하는 김찬미(19·여·서울동촌학교) 선수도 그 중 한 명이다. 김 선수는 중학생 때 육상선수로 활동했다.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했으며, 지난해 2월 열린 프레대회 개막식 때는 선수대표를 맡았다.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크로스컨트리 종목 선수들이 훈련을 마친 뒤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미소 짓고 있다.

김 선수는 "높은 슬로프에 오르면 긴장되지만 출발하면 괜찮아져요. 내려오고 나면 빨리 다시 올라가 타야겠다고 생각해요"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친구들과 친해져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 준비과정에서 김 선수와 친해진 손재원(15·남·부산 낙동중) 선수도 기대주다. 손 선수는 "옷에 태극마크가 달려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 선수는 곧 태극마크가 달린 유니폼을 지급받게 된다.

헌신적 조력자인 코치진

스페셜올림픽 선수들의 훈련은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때문에 훈련은 늘 느린 걸음일 수밖에 없다. 알파인스키 종목의 정태연(42) 코치는 "일반인이 훈련 장면을 보면 답답해 못 견딜 것"이라며 담담한 미소를 띠었다.

훈련도 훈련이지만 보호자와 떨어져 합숙하는 선수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손길도 필요하다. 알파인스키 종목의 경우 선수 28명에 코치 7명, 자원봉사 5명이다. 대부분 특수학교나 복지관 현직교사들이다.

20여 년 전부터 장애인의 동계스포츠 교육에 힘써왔다는 알파인스키 오충환(51·주몽학교) 감독은 "아직 모든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만큼 오기까지 뒷받침해준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곳 지적장애인 선수들은 각 시·도에서 모인 엘리트들입니다. 우리가 키운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코치와 감독, 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대회가 끝나면 몇 분이라도 직접 찾아가 인사드릴 생각입니다." G 글·사진 남창희 객원기자

씨줄·날줄로 엮은 사랑의 목도리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뜨개질… 선수·개막식 참가자 모두에 선물

전 세계 지적장애인들의 축제인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참가자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이 준비됐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뜨개질해 기증한 '스페셜스카프'다. 스페셜올림픽 참가자와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 한 올 한 올에 담긴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이 기다리고 있다.

120여 개국가 선수들이 참가해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열리는 2012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을 보름 남짓 앞두고 조직위원회 사람들에게 예기치 못한 '행복한 업무'가 주어졌다. 전국에서 물밀듯 쏟아지는 '스페셜스카프' 완성품을 회수하는 일이다.

스페셜스카프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뜨개질한 목도리로, 대회에 참가하는 전 세계 선수단에게 선물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목도리용 실과 뜨개바늘이 들어 있는 키트를 구입해 목도리를 뜬 다음 조직위원회로 보낸다. 제작비 일부는 대회 공식 후원사인 신한카드에서 후원했다.

지난해 7월 1일 시작한 스페셜스카프 캠페인을 통해 조직위원회가 처음 목표로 했던 수량은 3,500개였다. 참가가 예상되는 선수단 규모인 3,300여 명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스페셜스카프 캠페인이 알려지면서 준비한 키트가 순식간에 동났다. 2차로 마련한 4,000개도 금세 바닥 났다. 스페셜스카프 캠페인을 마감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모두 7,500키트가 자원봉사자들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1월 8일 현재 조직위원회가 회수한 스페셜스카프는 6,300여개다. 개막 당일이 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위원회 마케팅2팀 변재웅 씨는 "회수한 목도리를 보니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면서 "스페셜올림픽의 슬로건인 'Together We Can'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의미하는데, 아마도 스페셜스카프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포토

자원봉사자들이 손수 뜬 스페셜스카프 수천 개가 2012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참가자들에게 선물로 전달되어 모두가 하나 되는 개막식을 연출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삼성동 공항터미널 컨벤션에서 열린 '색다른 목도리' 캠페인

실제로 캠페인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목도리에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다. 스페셜스카프 홈페이지(www.specialscarves.kr)의 '자랑' 코너에 자신이 뜬 스카프 사진과 소감을 올린 이수인 씨는 "이 목도리가 선수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역시 같은 코너에 글을 올린 정성경 씨는 "이 목도리를 하시는 분이 꼭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개막식을 장식할 삼색 스페셜스카프

또 딸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정미연 씨는 "목도리를 짜면서 처음 하는 봉사에 뿌듯함을 느꼈다"면서 만드는 동안의 감동을 전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개인 참가자 외에 다수의 단체 참가자들도 정성을 더했다.

스페셜올림픽 개막 D-100일이었던 지난해 10월 29일에는 여성 및 장애인 관련 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색다른 목도리' 캠페인 행사에서 300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뜨개질하는 장관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캠페인의 첫 삽을 뜬 신한카드 임직원 260명을 비롯해 한국시민봉사회, 써니봉사단, 구의1동주민센터,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평창군, 서울시여성창업보육센터, 속초여중 학부모회, 외교통상부 배우자회 등 많은 단체가 캠페인에 함께했다.

또한 영덕중, 안양예술고, 예당중, 진목초등 등 전국 29개 초·중·고교 학생도 정성을 보탰다. 특히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는 지난 1월 7일 스페셜스카프 1,639개와 후원금 약 1,200만원을 전달해 가장 많은 스페셜스카프 기증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스페셜스카프의 수량이 늘어나면서 조직위원회는 회수한 스페셜스카프의 용도를 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은 끝에 결국 선수단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뜬 다양한 디자인의 스페셜스카프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이렇게 열린다

- **기 간** 2013. 1. 29(화) ~ 2. 5(화) 8일간
- **장 소** 평창(알펜시아, 용평리조트), 강릉(실내빙상경기장)
- **참가규모** 120여 나라 3,300여 명(선수 2,300명, 임원 1,000명)
- **경기종목** 7개 종목 55개 세부종목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노 보드, 스노 슈잉, 스피드 스케이트, 피겨스케이트, 플로어 하키)

개막식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에게 스페셜스카프를 나눠주기로 했다.

"선수단을 비롯해 개막식에 참석하는 모든 분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대회 기간 내내 모두 스페셜스카프를 두르고 하나됨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한국 국민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추억에 남는 선물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조직위원회 마케팅2팀 정대화 씨의 설명이다.

스페셜스카프의 색상인 연두·빨강·파랑은 대회의 공식 마스코트인 라(Ra)·인(In)·바우(Bow)에서 따왔다. 서로 색이 어우러져야만 아름다운 무지개(Rainbow)가 되는 것처럼 저마다 개성을 가진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해야만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1월 29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용평돔은 삼색 목도리를 두른 대회 참가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무지개가 개막식 참가자들에게, 그리고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개막식 소식을 접하는 전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스페셜스카프 캠페인은 2009년 미국 아이다호에서 열린 동계스페셜올림픽에서 처음 등장해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이후 이 캠페인은 4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기부자의 손끝을 통해 새롭게 완성됐다. 스페셜스카프에 담긴 기부자들의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스페셜올림픽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G

글·이윤진 객원기자

지적장애인 작가 이마로(오른쪽 끝) 씨가 1월 3일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아트 링크 프로젝트를 찾은 나경원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스페셜올림픽, 예술작품으로 응원해요"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작가가 멘티·멘토로 참가

전 세계 지적장애인 운동선수들을 위한 스포츠 축제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축제의 문이 스페셜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만 열린 것은 아니다. 부대행사로 마련된 전시·체험행사는 국내 지적장애인 작가들이 예술을 통해 비장애인과 소통하고 참가선수들을 응원하는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1층에서 열린 '아트 링크 프로젝트(Art Link Project)' 전시장. 어릴 적 텔레비전에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했던 '로보트 태권브이'와 흡사한 조각상이 전시장 입구에 우뚝 섰다. 나무로 만든 몸체는 얼핏 투박해 보인다. 2미터가 훌쩍 넘는 높이에 양팔을 머리 위로 치켜든 자세가 힘자랑을 하듯 위압적인 느낌도 든다. 찬찬히 살펴보니 이는 오해였다. 치켜든 손에는 무기 대신 작은 로봇이 가득한 선물상자가 들려 있다. 지적장애 공예작가 박태현(20·자폐성장애1급) 씨의 조소작품 '슈퍼 가디언'이다.

"태현이는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에 나오는 로봇을 엄청 좋아했어요. 곧잘 로봇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로 만들기도 했죠. 작은 로봇은 태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면서 관람객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죠."

박씨의 어머니 김선화(48) 씨가 아들을 대신해 작품을 설명했다. 천진난만한 모습의 '전투로봇' 슈퍼 가디언은 장애와 편견 속에서도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작가의 모습을 담았다는 이야기였다.

아트 링크 프로젝트는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는 특별한 전시회다. 지적장애인 작가 10명과 비장애인 작가 10명이 각각 멘티와 멘토로 참가해 지난해 12월 한 달간 함께 작업한 80여 점의 회화·드로잉·사진·조소·설치작품을 전시했다.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조직위가 주최하고 장애인 예술지원단체 사단법인 에이블아트가 주관하는 행사다.

아트 링크 프로젝트는 1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과 강원도 평창에서 1, 2부 두 번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미리보기' 행사였던 1부는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와 중구 회현동 금산갤러리에서 지난 1월 8일 끝났다. 본 전시회인 2부는 동계스페셜올림픽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3층 로비에서 열린다.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

아트 링크란 장애학생이 지닌 예술성을 비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작품으로 이끌어내는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예술활동을 뜻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육체 단련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자기 개발과 사회적응을 촉진한다는 스페셜올림픽의 취지를 예술분야로 확장한 셈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지적장애 재미동포 화가 데니스 한(37)과 그의 멘토인 심현지 작가가 참여해 눈길을 끈다. 데니스 한은 생후 1년4개월 만에 뇌막염을 앓아 지능이 5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모 겸 스승인 심현지 작가를 통해 그림을 배워 화가의 꿈을 이뤘다. 파랑스 파리 유네스코갤러리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본부에서 열린 그의 전시회장을 방문해 화제가 됐다.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부대행사로 마련된 만큼 동계올림픽 관련 작품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적장애인 작가 이마로(19·자폐성장애) 씨는 평창 설원을 배경으로 스케이팅·아이스하키·스키 경기중인 선수들을 그린 만화작품을 출품했다. A4용지 크기의 소형 작품이 멘토의 손을 거쳐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탈바꿈해 관람객의 발길을 잡는다.

이씨의 어머니 서은주(54) 씨는 "아들이 멘토 작가와 그림을 통해 별다른 대화 없이도 소통하고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며 "반응이 조금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들의 내면과 잠재력을 간과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지적장애인의 풍부한 상상력에 기성 작가들의 관록이 결합한 작품에 관객들의 반응도 뜨겁다. 인사동에 들렀다 우연히 전시관을 찾았다는 이미선(34·여) 씨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작품이 많다. 장애인들의 작품이라니 놀라울 뿐이다" 라고 소감을 말했다. G

글·남창희 객원기자

홍보대사로 위촉된 홍명보 전 감독·이외수 작가.

홍명보 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이외수 작가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 합류

홍명보 전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이외수 작가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두 사람은 앞으로 스페셜올림픽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스페셜올림픽 선수들과 자리를 함께한 홍 전 감독은 "열심히 경기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스페셜올림픽 선수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그 감동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거스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소셜미디어(SNS) 명예홍보대사에 임명된 이외수 작가는 1월 7일 자신이 사는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감성마을에서 위촉장을 받았다. 이외수 작가는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고장에서 열리는 지적장애인들의 축제인 스페셜올림픽을 위해 마음을 다해 홍보에 협조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들 외에도 피겨선수 김연아, 비보이 팝핀현준, 가수 김태원과 이문세, 뮤지컬 배우 남경주, 피아니스트 이루마, 지적장애 수영선수 김진호, 배우 김윤진 등이 홍보대사로 활동중이다.

문의 평창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 02-739-2013
홈페이지 2013sopoc.org/hb/ko

국민 모두가 문화 향유하는 그날까지…

저소득층 문화예술 관람률 증가… 문화바우처 정책 효과 톡톡

문화예술 향유 소외계층이 줄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년 주기로 시행하는 문화향수 실태조사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바우처 사업 덕분이다.

요즘 주부 김애순(44) 씨는 열세 살짜리 아들과 함께 문화바우처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5만원 한도 내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바우처 카드로 영화·연극 관람은 물론 도서 구입 등 적극적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 이른바 '저소득층'으로 분류될 만큼 빠듯한 살림살이 때문에 이전에는 꿈꾸기 힘들었던 일들이다.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에 여유가 없어지면서 문화생활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어요. 길거리를 지나다 포스터나 광고를 통해 보고 싶은 공연이나 영화를 발견해도 만만찮은 관람료 때문에 포기해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문화바우처 카드 덕분에 아이와 함께 보고 싶은 영화나 공연을 관람하는 데 망설임이 없어졌어요."

문화적 소외계층이 줄고 있다. 과거 문화생활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즐길 수 있는 특권과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년 주기로 시행하는 문화향수 실태조사 결과 저소득층의 예술 관람률이 적잖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향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월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2010년 대비 2.3% 증가했다. 연평균 관람률이 2010년 24.6퍼센트에서 지난해에는 26.9퍼센트로 늘어난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 만 15세 이상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1 대 1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중앙포토

문화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장래문화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한 뮤지컬 〈미남이시네요〉의 한장면.

조사에서는 저소득층이 소득별 문화예술 관람률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예술 관람률이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다소 감소세를 나타낸 것과 대조된다.

또한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문화예술 관람 횟수는 1.6회로, 전체 관람 횟수 평균인 4.9회에 비해 아직도 약 3분의 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8년 9분의 1, 2010년 4.5분의 1정도 차이가 났던 것과 비교하면 문화향수의 격차가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이용자들의 문화예술 향수율은 비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바우처 이용자의 예술행사 관람률은 비이용자의 약 1.6배, 관람 의향은 약 8배, 문화공간 연간 이용률은 약 3배 등 모든 분야에서 비이용자에 비교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문화바우처 사업이 저소득층의 문화향수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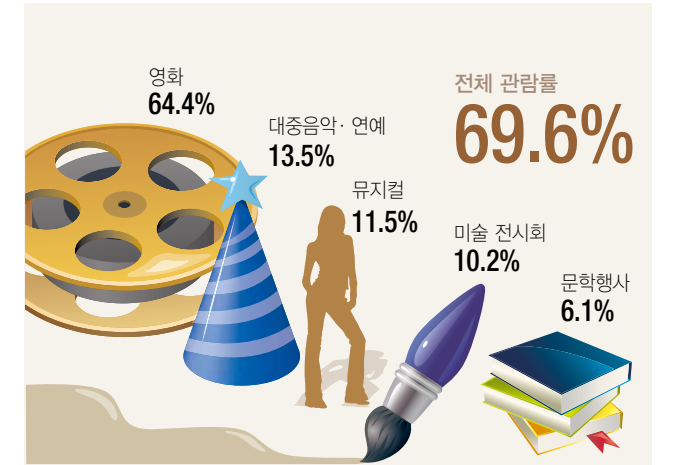
문화바우처 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됐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CD·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0대 한국 문화유전자의 하나인 '어울림'을 현실에 적용한 정책이다. 지난해 문화바우처 제도의 1인당 지원 한도는 연간 5만원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6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05년 시작된 문화바우처 사업 확대 예정

한국 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 최정화 교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바우처 사업은 편리하고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좋은 정책"이라며 "잔잔하면서도 놀라운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교수는 현 정부의 문화정책이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 연구원(CICI)'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편 전체 예술행사 연평균 관람률은 69.6퍼센트로 2010년 조사 결과(67.2퍼센트)에 비해 2.4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별 관람률은 영화(64.4), 대중음악·연예(13.5), 연극(11.8), 뮤지컬(11.5), 미술전시회(10.2), 전통예술(6.5), 문학행사(6.1), 서양음악(4.4), 무용(2.0) 순이었다.

예술행사 장르별 관람률 (2010년 기준)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이용자 문화 향수율

구 분		예술행사 관람률	예술행사 관람 의향	문화공간 연간 이용률	문화공간 행사 참여율
문화 바우처	이용자	62.4	36.1	70.1	70.9
	비이용자	37.9	4.5	24.6	17.5

(단위 : %)

또 아동·청소년기에 문화예술 경험이 있는 사람의 예술행사 관람률이나 관람 의향 등이 문화예술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높았다. 과거의 문화예술교육 및 행동 경험이 미래의 문화예술 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예술행사 관람 장애요인으로는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음(31.7퍼센트)'을 1순위로 꼽았다. '시간 부족(21.6)', '경제적 부담(19.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음'이 2010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해 '시간부족'을 앞질렀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선택 기준은 '내용 및 수준(40.9)'이 가장 높았으며, '관람비용 적절성(21.5)' '참가자 유명도(14.0)'의 순이었다. 이를 2010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관람비용 적절성은 약 17퍼센트 감소한 반면 '내용 및 수준' '참가자 유명도'는 증가했다.

문화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문화향수 장르를 다양화하고 문화바우처 사업을 확대해 저소득층과 노인층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문화예술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민의 문화 향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G

글·김지연 기자

"누구나 가기 편한 곳에 모셔야죠"

이돈구 산림청장이 말하는 수목장 확대 정책… "수목장림 조성 지원 확대할 것"

현재 전국의 묘지 면적은 국토의 1퍼센트인 10만 헥타르 정도다.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900헥타르의 국토가 묘지 등 장례용으로 쓰인다. 묘지로 인한 국토 잠식 현상은 여전하고 골분을 모실 납골당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수목장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전국 화장률은 71.1퍼센트였다. 20년 전인 1991년 17.8퍼센트에 비하면 확연히 늘어난 수치다. 10년 전인 2001년(38.3퍼센트)에 비해서도 32.8퍼센트나 증가했다.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점차 바뀌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수목장문화가 국토를 더욱 푸르게 만드는 대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장례 관련 국토 활용 문제는 계속 숙제로 남아있다. 화장률이 높아지자 이제는 화장한 골분을 안치할 공간이 부족해졌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이상 골분을 안치할 납골당의 빈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산림청이 나섰다. 임야를 관리하는 산림청이 왜 장례문제 해결에 뛰어들었을까? 이돈구(66) 산림청장을 만나 그 이유를 들었다.

이 청장은 "산림청은 가장 넓은 국토를 관리하는 관청인데 장례문화로 국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지켜만 보고 있겠느냐"며 입을 열었다. 이 청장이 제시한 해답은 수목장(樹木葬)이다. 수목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수목장림을 조성해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장례용지 확보와 국토 산림화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수목장은 지정된 수목 주위에 골분을 뿌리거나 항아리에 담아 뿌리 주변에 묻는 장묘법이다. 이를 위해 지정된 산림을 수목장림이라고 한다. 이 청장은 "수목장은 현실적이고도 친환경적인 장례문화이자 우리 국토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수목장이 대중에게 소개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04년 9월 고(故) 김장수 고려대 교수의 수목장이 계기였다. 이후 수목장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시민들의 참여가 일어났다. 2006년 2월에는 정부가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전국 국유·공유·사유지 등에 수목장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청장은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문화가 바뀌어 국토를 아껴 쓰게 된 것처럼 화장에서 수목장으로 문화가 바뀌면 우리나라 국토를 아낄 수 있고 산림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6월까지 전국 56곳 41헥타르 면적에 수목장림이 조성됐다. 이중 53곳은 사유 수목장림이다. 국유 수목장림은 2009년 5월 경기도 양평에 개장한 '하늘숲추모원'이 유일하다. 모두 2,009그루 중 92.3퍼센트인 1,856그루의 분양을 마쳤다. 추모목 1그루를 15년간 사용하는 비용은 288만원이다.

지역주민을 위해 만든 공유 수목장림으로는 인천 부평의 인천가족공원과 경기 의왕의 의왕하늘쉼터가 있다. 인천가족공원은 2008년 8월 개장해 추모목 475그루를 모두 분양 완료했다. 보통 추모목 한 그루에 4분의 유해를 모신다. 15년간 수목장 사용료는 135만원이다. 의왕하늘쉼터는 2010년 3월 개장했다. 추모목 250그루 중 7그루만 분양하고 중단한 상태다.

이 청장은 "분양 수요는 많았지만 2011년 5월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해 잠시 분양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유 수목림장 53곳을 설립주체별로 보면 개인 15곳, 종중 23곳, 종교단체나 법인 15곳으로 나뉜다. 15년간 사용료는 나무 가격이나 위치에 따라 725만~2,240만원으로 국·공유 수목림장에 비해 훨씬 비싸다.

경기도 양평의 국유 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은 수목장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시도별 수목장림 1곳 이상 조성

이 청장은 "전국 수목장림에 가보면 잘 가꾼 숲이 참 아름답다"면서 "수목장을 마친 유족들도 고인이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건물로 만든 답답한 납골당에 비해 하늘이 열린 숲에 고인을 모시는 것이 유족에게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준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이런 이유로 앞으로 더 많은 수목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묘지나 화장터처럼 혐오시설로 인식돼 종종 조성지역 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조성주체가 지방비를 내야 해 수목장림 조성이 부담되는 것도 난제다.

이 청장은 "국유 수목장림에 붙인 추모원이라는 명칭이 지역주민의 수목장림 기피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추모원보다 국민친화적 명칭인 쉼터로 이름을 바꾸고 늘어나는 수요를 감안해 수목장림의 면적과 규모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유 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은 규모가 10헥타르 2,000그루 정도지만 향후에는 30헥타르 6,000그루 규모의 하늘숲쉼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청장은 또 "새로 조성하는 국유 수목장림은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화한 모습으로 꾸며 지역주민의 수목장 수요를 더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산 사람이 가도 좋은 곳에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 싶다"며 "나 역시 훗날 수목장림에서 영면에 들고 싶다"며 말을 맺었다. G

글·박상주 기자

“50%의 지지, 감사합니다”

귀화 무산된 축구선수 에닝요, 재미와 감동의 축구로 보답할 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몸으로 한국축구 국가대표를 꿈꾼 청년이 있다. 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 소속의 에닝요 선수. 그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특별한 기량을 바탕으로 특별귀화를 신청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중앙포토

한국을 사랑해 한국인으로 귀화하겠다고 밝힌 축구선수 에닝요.

“50퍼센트의 국민이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의 에닝요(32)는 자신으로 인해 불거진 특별귀화 논란에 담담한 모습이었다. 본명 에니오 올리베이라 주니오르(Enio Oliveira Junior). 에닝요로 등록된 이 선수는 태극마크에 가장 근접했던 첫 귀화 한국인 선수가 될 뻔했다. 그러나 해프닝에 그친 논란도 에닝요의 한국사랑을 막아 설 수는 없었다. 에닝요는 “한국에 대한 마음은 한결같다. 한국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말한다.

올해로 한국생활 만 8년째를 맞는 에닝요는 2003년 수원 삼성 소속으로 한국과 첫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그가 첫해 남긴 기록은 초라했다. 21경기 2골 2도움. 그는 여느 외국인 선수처럼 적응에 실패하며 잊혀져 갔다. 한 시즌을 마치고 돌아가는 외국인 선수들은 그 외에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에닝요는 조금 달랐다. 브라질의 여러 클럽을 떠돌던 그는 2007년 대구FC 소속으로 다시 한국 무대에 섰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각오가 남달랐다. 그런 노력은 성적으로 나타났다. 에닝요는 대구에서 두 시즌을 뛰며 21골 16도움으로 한국 축구 무대에서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K리그 빅 클럽들도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당시 전북의 사령탑을 맡고 있던 최강희 감독이 에닝요를 영입했다. 최 감독은 자신의 축구에 에닝요의 공격 본능을 덧칠했다. 결과는 최상이었다. 둘은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K리그 정상에 올랐다. 에닝요는 2009년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2골을 터뜨렸다. 2011년 챔피언 결정전 1~2차전에서는 3골을 넣으며 팀 우승의 일등공신이 됐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시즌 동안 그가 세운 기록은 87경기 39골 30도움.

에닝요는 한 인터뷰에서 “전북에서 최 감독님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기량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최 감독님과 전북, 그리고 한국축구에 보답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에닝요는 축구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지만 그의 활약은 K리그에 국한돼 있었다. 그러나 최 감독이 2011년 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옮겨가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최 감독은 부진한 대표팀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맡았다. ‘원 포인트 릴리프’ 성격이 강했다. 최 감독 스스로도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전까지라며 임기를 분명하게 못박았다.

최 감독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이용하고자 했다. 대표팀 공격수로 이동국과 좋은 호흡을 자랑했던 에닝요를 염두에 뒀다. 에닝요는 이미 한국 체류 5년을 넘겨 특별귀화 조건에 부합했다. 2010년 도입한 우수인재 복수국적 취득 추천자로 특별귀화 자격을 갖췄다.

대한축구협회는 최 감독의 요청에 따라 특별귀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2월 말 열린 2014 브라질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쿠웨이트와 경기에서 승리한 뒤 에닝요는 귀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5월 초 에닝요의 특별귀화 추진이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다.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실력이 뛰어나 대표팀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적지 않은 나이로 브라질월드컵에서 뛰기는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았다.

고향의 부모님도 귀화 적극 지지

에닝요의 짧은 한국어 실력과 한국어 습득 노력, 진정성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에닝요는 “선수들과 2시간 정도는 충분히 수다를 떨 정도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통역이 항상 곁에 있어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협회는 서둘러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특별귀화 추천을 요청했다.

체육회의 답변은 싸늘했다.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는 “에닝요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순수한 외국인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할 경우 혼란이 따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전례도 없어 무리하게 귀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부결안을 전달했다. 재심 요청도 기각됐다.

최 감독은 “에닝요는 전형적인 한국형 용병이다.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진정성도 충분히 파악했다. 말을 잘하더라도 진정성은 보장할 수 없다. 에닝요는 한국을 정말 사랑하고 대표팀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에닝요는 귀화 논란으로 마음에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말수가 줄어들었다. 의연한 척 대처하려고 했다. 지난해 38경기에 출전해 15골 13도움을 기록했다. 수치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와 가까운 관계자는 “에닝요가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것은 사실이다. 체력문제와 겹쳐 심신이 크게 지쳤다. 이것이 후반기 경기력 저하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귀화 논란이 일단락되자 에닝요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귀화 논란에 대한) 부담을 완벽하게 떨쳐내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속상했습니다. 축구선수 에닝요를 반대했다면 차라리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성이나 순혈 등 인종문제로 거론된 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홀가분합니다. 50퍼센트의 국민이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를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에닝요는 2011년 연말부터 귀화의 꿈을 키웠다. 2012년이 되면 귀화 조건인 거주 5년을 채운다는 말을 지인들로부터 들었다. 국가대표팀 꿈도 그려봤다. 그는 “진정성을 담아 한국축구에 자그마한 기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2년 1월 브라질 전지훈련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그 자체였다.

“가족은 한국생활에 크게 만족합니다.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습니다. 브라질에 계신 부모님도 귀화에 긍정적입니다.”

귀화 논란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됐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에닝요는 한 달간의 꿀맛 같은 휴가를 마치고 오는 10일 브라질에서 합류하는 전북 선수단과 함께 새 시즌을 준비한다. 에닝요는 또 다시 태극기가 그려진 축구화를 신고 녹색의 그라운드를 수놓을 것이다. 한국 축구팬들에게 재미와 감동의 드라마를 선사하기 위해서다. G

글·박상준 (스포츠동아 기자)

중앙포토

에닝요는 그라운드에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함으로써 한국팬들이 보여준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한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지난해 11월 복원된 이화령 생태통로.

백두대간 생태계 되살아 난다

87년 만에 다시 이은 이화령 생태통로에 고라니 출현

끊겼던 백두대간 이화령 구간의 생태계가 복원됐다. 이화령은 경북 문경과 충북 괴산의 경계에 있는 고개다. 백두대간의 본줄기로 일제강점기인 1925년 도로가 생기면서 맥이 끊겼다 87년 만인 지난해 11월 15일 생태통로를 만들면서 다시 이어졌다. 이 생태통로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23분경 고라니 이동 장면이 CCTV에 처음으로 촬영됐다. 한반도의 등줄기이자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생태계가 복원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주관한 이화령 구간 생태통로 복원사업은 지난해 총 48억원을 투입해 길이 80미터, 폭 50미터의 생태통로를 새로 만들고 그 아래로 터널을 뚫어 차와 자전거 통행로를 조성한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2월부터 백두대간 관련 시민단체와 환경·조경·산림전문가 및 향토 사학자 등의 자문을 받아 4월 초 설계를 완료하고 6개월간의 공사를 거쳤다. 일제에 의해 단절된 백두대간을 되살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동시에 한반도의 중심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취지에서다.

행안부는 이화령 구간 생태통로 복원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14일 이 일대에 CCTV를 설치해 야생동물의 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촬영 17일 만인 지난해 12월 31일 괴산 방향에서 조령산 쪽으로 이동하는 암컷과 수컷으로 추정되는 고라니 한 쌍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달 4~5일에도 야간에 고라니의 움직임을 포착했고, 그 배설물도 곳곳에서 확인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야생동물연합 조범준 사무국장은 "백두대간은 한반도 생태축으로서 매우 중요함에도 그동안 단절돼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고라니 이동으로 미뤄 생태축 복원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국장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고라니뿐 아니라 산양·삵·담비 등 멸종 위기종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대감을 내보였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생태통로에 고라니의 이동 사실이 확인된 것은 단절됐던 이화령 구간의 생태계가 복원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복원이 시급한 백두대간 단절 구간 12곳 복원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향후 전북 장수 육십령, 경북 문경 벌재, 경북 상주 비재 등 백두대간 단절구간 12곳을 추가로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G

글·김지연 기자

행정안전부

1월 7일 이화령 생태통로 주변에 설치한 CCTV에 고라니가 포착되었다.

명백한 실수!

멋진 실수를 해보라. 실수는 자산이다. 대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멋진 실수를 통해 배워라. - 김난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중에서

뮤지컬 〈오페라 유령〉이 다시 한국을 찾았다.

팬텀의 마법 부활하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내한공연

전 세계 1억3,000만 명이 관람한 뮤지컬계의 스테디셀러 〈오페라의 유령〉이 다시 한국을 찾았다. 1986년 영국 웨스트엔드 초연 25주년을 기념한 월드투어공연의 일환이다. 2001년 국내 초연에서 2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이후 한국에서만 90만 명이 관람한 흥행작이다.

1988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첫 무대에 오른 〈오페라의 유령〉은 지난해 월드 기네스북에 '브로드웨이 최장기 공연'으로 정식 등재됐다. 전 세계에서 6만5,000회 이상 공연됐으며, 27개국 145개 도시에서 티켓 판매로만 매출액이 56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번 내한공연에서는 역대 '최고 팬텀'으로 평가받는 브래드 리틀이 무대에 선다. 그 외 크리스틴 역의 클레어 라이언, 라울 역의 앤서니 다우닝까지 막강한 캐스팅을 자랑한다. 브래드 리틀은 브로드웨이와 월드투어에서 2,200여 회 팬텀 역을 연기했다. 〈지킬 앤 하이드〉 내한공연, 개인 콘서트 공연을 통해 국내에도 두터운 팬 층을 확보하고 있는 브로드웨이 배우다. 클레어 라이언은 호주 국립오페라단 출신으로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새로운 뮤즈로 떠오른 여배우다.

이 작품은 19세기 파리 오페라하우스를 배경으로 한다. 흉측한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오페라하우스 지하에 숨어 사는 천재 음악가 팬텀과 프리마돈나 크리스틴, 그리고 크리스틴을 사랑하는 귀족 청년 라울의 러브 스토리를 담았다. 주제곡 '오페라의 유령(Phantom of the Opera)' 등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명곡들은 18인조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버무려져 짙은 감동의 여운을 남긴다.

글 · 김지연 기자

기간 3월 24일까지,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문의** 1577-3363

전시

미국 인상주의 한국특별전

미국 인상주의 작품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한·미 수교 130주년 기념해 기획한 전시다. 프랑스에 뿌리를 둔 인상주의가 미국적 표현으로 확산된 것과 미국 풍경화로 재해석된 것 모두를 탐구한다. 90명의 다양한 작가들로 이루어진 130점의 작품은 'Bank of America' 컬렉션이다. 미국 인상주의 발자취를 더듬어 올라가면서, 진정 미국적 스타일의 회화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다.

기간 3월 29일까지 **장소** 한가람미술관
문의 02-501-6976

공연

살롱콘서트 아톡(Art-talk)

강동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살롱음악회 아톡'은 감성을 충전하는 힐링 콘서트다. '살롱음악'은 왕후나 귀족의 거실에서 피아노나 현악기 등의 독주악기를 감상하는 공연의 한 형태다. 18세기 유럽에서 성행한 살롱은 문화적 감동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었다. 밀도 높고 친밀한 공간에서 관객이 연주자들과 가깝게 교감하며 일류로 꼽히는 아티스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한다. 낭만주의시대 유럽에서 유행했던 살롱음악회처럼 객석을 100석으로 한정한 작은 실내 공간에서 아티스트와 친밀하게 교감할 수 있다. 공연 전 간단한 다과를 제공해 여유로운 아침의 커피 타임 같은 특별한 즐거움도 선사한다.

일시 1월 17일, 2월 21일, 3월 21일
장소 강동아트센터 스튜디오#1
문의 02-440-0500

때로는 둔감도 미덕이 된다

유행이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전통문화의 자존감 세울 때

그 때, 포르투갈의 와인 산지인 도루를 향해 가는 중이었다. 포르투와인은 프랑스에서조차 그 옛날 랭보나 베를렌느도 즐겨 마셨고, 하나의 문화를 이룰 만큼 아주 고급스러운 와인이라고 했다. '그 와인이 어떻길래' 하며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택시를 탔다.

택시 안에서는 그 옛날 좋아했던 그룹 퀸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햇빛 찬란한 고음으로 신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울었다. 택시 안은 택시 같지 않고 아주 작은 카페 같았다. 달리는 카페 속에서 눈을 감고 행주처럼 푸욱 젖어갈 무렵 전직 축구선수인 택시기사 아저씨도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다. 나도, 담당 피디도 함께 흥에 젖었다. 교육방송(EBS)의 세계테마기행 출연차 떠난 포르투갈 여행이었다.

그렇게 포르투갈 전역을 돌아볼 때 어디를 가나 강력한 세계 공유의 추억은 팝송이었다. 그 팝송이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세대를 묶어가는 것을 느꼈다. 노래를 통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다.

중앙포토

때로는 한 곡의 노래가 그 무엇보다 훌륭한 소통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 모인 2만여 군중 앞에서 '강남 스타일'을 공연하는 가수 싸이.

그렇게 포르투갈 전역을 돌아볼 때 어디를 가나 강력한 세계 공유의 추억은 팝송이었다. 그 팝송이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세대를 묶어가는 것을 느꼈다. 노래를 통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다.

좋아하는 가수와 연예인들은 이상하게도 가족 같다. 그들의 삶과 죽음마저 마치 곁에서 일어나듯 강한 현실감을 준다. 음악은 즐기면 즐길수록 잊히지 않는다. 떠올릴 때마다 감미로운 추억에 젖고 어디서든 따사롭다.

구닥다리 노래와 요즘 노래의 차이

러시아 공항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내내 내가 좋아하는 팝송이 흘러나와 낯선 장소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덴마크의 차 안에서도 아바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때 만난 스물두 살이라는 청년 가이더는 이렇게 말했다.

"아바의 노래는 저도 좋아해요."

"그 옛 노래를 알아?"

"여기서는 구닥다리 노래와 요즘 노래를 가리지 않아요. 그냥 들어서 좋으면 다들 좋아해요."

내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던 대학생인 가이더와 서먹함을 노래가 지워가고 있었다.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유행에 민감하지 않았다. 좋으면 오래되든 아니든 흔들리지 않는 전통을 사랑하는 문화적 자존감이 대단했다. 외모지상주의가 너무나 당연시되고, 유행과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아주 좋은 점이었다.

그때 열린 창문에서 불어온 바람과 함께 아바의 '댄싱 퀸'이 살며시 나를 감싸 안고 미소지었다. 그렇게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따사롭게 묶어가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세대를 넘고, 시간을 넘어 음악이 흐르는 차 안은 흥겹고 편안했다. 그렇게 추억과 최근에 있던 일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엉켜 흘러갔다. G

글·신현림 시인